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2호 2011년 2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 441-0011
Email: snuahq@gmail.com



신감, 더 많은 연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동맹성 장외위원회'와 '세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범구주권위원회'에 대해 서도 '세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추진되는 것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국가 품격을 높이는 것이므로 한인회를 비롯한 각 동포 단체들과 각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교수진들이 힘을 합쳐 세주도가 반드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참가 희망자는 인터넷 www.N7W.COM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이 미주 부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하게 진출해줄지 바란다"고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경제적자로서 조속한 비준이 바람직하며 한미 FTA가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여기 보다는 다양한 관도들의 미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모교 강연회 교수들의 서울대 제단 날기발견위원회 출범 기념식이 있었다.
정 전 총리는 30일 뉴욕, 31일 댈러스, 2월 1일 구엘름(스페인) 한국기독교 선교사 에 참석해 뒤 2월 4일 방미경 세계개발연구소(KAED) 심포지엄 등에서 강연회를 가진 후 귀국했다.

정운찬 전 총리·전 총장 샌디에이고 및 LA강연

<사진> 모교 LA사무소

동문 비롯해 동포들에게 큰 자긍심

'불확실성 시대 한국과 미국의 미래' -샌디에이고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 -LA

정운찬 전 국무총리·모교 전 총장이 모교 미주재단과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초청으로 지난 1월24일부터 미주를 방문해 각각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샌디에이고 캠퍼스 강연회에서 정 전 총리는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과 미국의 미

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샌디에이고 동포 단체장들과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과 '세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지역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29일 LA강연회에서는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과 남북한 분단,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강인한 민족성을 과시했으며 오늘날 G7에 속할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외 동포들도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 우리 조국이 이치된 성공한

배경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첫째, 미국과 UN등 우리를 돕고 응원하는 친구들 덕택임을 강조했다.
두번째는 교육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등을 들었다. 세번째는 '하연 리더'와 '파이널' 등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지난 해는 G20정상회의도 유치했다는 것.
이와 정 전 총리는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층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며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자

PRSRS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제16대 이현재 총장 장학기금'

제자를 30여명 증차하 설립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이현재 제16대 모교 총장(82, 모교 명예교수·전 국무총리·사건 오픈북)의 제자회는 스승의 강단 50년을 기념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수 인재 육성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조성해 모교에 기부했다. 기금 명칭은 '제16대 총장 이현재 교수 장학기금'이다.

모교는 지난 1월 28일 행정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현재 총장, 박명진 교육부총장, 이승훈 연구부총장, 이명

철 발전기금 부이사장, 김홍중 교수처장, 이학래 학생처장, 구인회 사회과학대학 교수부총장, 홍기원 경제학부장, 이준구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이현재 전 총장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제16대 총장 이현재 교수 장학기금'은 인문·사회·자연 등을 망라한 모교 재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 조성 후 지급되는 2011년 첫 장학금에는 경제학과와 경영대학 및 단과대학 등 총 5명의 학생에게 지원된다.

장학기금은 작고하신 자당(孝堂)의 유언과 자신이 뜻하는

서울대학교 제16대 총장 이현재 장학기금 협약식



바에 따라 평소 이현재 전 총장이 희망·철순·필순 등 수업을 일선 사항해 온 태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던 제자들이 기금을 조성했다. 스승을 향한 기념과 사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뜻을 모으자마자, 30여명이 달하는 제자들이 단시일에 기금 모금을 완료했다.

이 전 총장은 "강단 50년을 기념하며 제자들이 이렇게 뜻깊은 장학기금을 설립해주시길 감사하며 영광이다. 장학기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인재로 거듭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금의 뜻이 캠퍼스 내에서 잘 전해질지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면에 계속>

■ 집 정운찬 전 국무총리·전 총장 강연사 3~5면

종합

수상·출간·모교 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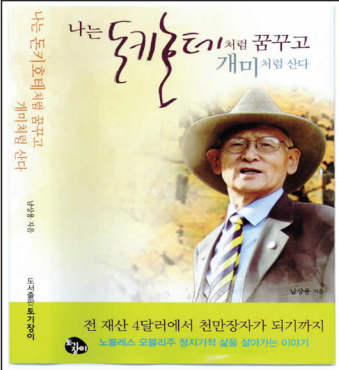


USUHS교수 임종식 등은 제14회 합춘학술상 시상식서 의학상

서울지역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박용탁)가 지난 해 12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합춘 송년 및 위' 행사를 열고 신후배 동문들의 화합을 다졌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합춘학술상 시상식에서 의학상 부문에 USHS 임종식(의학 50-50)교수, 모교 내과학교실 방영우(의학 73-70)교수, 정신과학교실 류인근(의학 82-60)교수, 동의대학교 부속 모교 생리학교실 서정선(의학 70-70)교수를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사건 원쪽부터 안규리·김진·김유림 등은, 서정선 등은 부부, 박용원 회장, 임종식 등은, 방영우 등은 부부, 류인근 등은 부부



남상용 등은 암 병명증 저서전 출간

‘나는 돈키호테처럼 꿈꾸고...’

‘미시간의 엘 아브(Michigan Ann Arbor)’라는 가난 가정 지터머오르는 한인사와 인사가 바로 동문 남상용(중대 52)박사다.

국학 연수소를 세웠으며 박물관에 한국의 유물 전시를 도맡아 우리 고국의 위상 제고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남상용 박사는 지난 해 말 자신의 전기기를 담은 ‘나는 돈키호테처럼 꿈꾸고 개미처럼 산다’를 펴냈다.

뿐만 아니라 미시간 대학에서의 남 박사에 대한 태도는 최고의 VIP 예우를 해주었다.

남상용 박사는 중남 아산에서 48년째를 돌며 살고 있다. 12세 때 해방을 맞았으며 17세 때 6.25 한국전쟁을 맞게 됐다.

그런데도 남 박사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더욱 가치있게 쓰기 위해 미국내 한국인 2-3 세대를 위한 신앙과 교육 공동체를 위해 불침착한 온갖 열정으로 봉사해오고 있다.

남 박사는 특히 미시간 대학에 한국학과를 개설해 주고 있다.

회상,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학예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 책은 남 박사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의 기술어 내 노력과 열정들이 고스란히 내재돼 있다.

한정 학술원 회원으로 재단법인 호림재단 이사장 겸 재회하고 있다. <모교 홍보팀>



장학빌딩 준공식 시상 19층, 지하 6층 전 세계 최고수준 기금 모금운동 계속중

서울 마포구 중심가에 신축중이다 모교 동창회의 장학 빌딩이 마침내 2월 준공됐다.

지난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이 장학빌딩은 지상 19층에 지하 6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동창회 건물로 알려지고 있다.

‘백을 한 장이라도 보려고 싶’은 동문 6만 5000여 명이 보낸 정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장학빌딩 건립을 위해 미주 총동창회에서도 이미 많은 동문들이 지난 해 1인당 100-500달러 이상씩 성금을 바쳤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송순영(한) 편집위원장: 고병철(법) 편집주간: 이기근, 논설위원: 김일호(CI) 김광우(N) 김재현(WA) 남재홍(N) 백순DO 오경남(EO) 옥진현(CD) 홍상재(MA) 이자구(N) 이창평(LA) 남승(CK) 장석호(CD) 장영준(W) 한상진(N) 편집위원: 조만기(한) 조영준(한) 조대현(한) 구경희(한) 이상재(사) 정호연(한) 홍혜라(사)

- 이번 호의 차례 3. 정윤찬 전 총리 감사사 4. 경제발전 이후의 미래 발전 5. 큰 벽지 깨우고 작은 벽지들문 시: 김상호<송수리> 6-9. 미주지역 동문들 10. 장난감 셋의 원류

- 11. 머구름 속의 짙은 시점정지철학사 12. 세리프스 조제길 동문<한인제> 13. 십자국/역사 시간, 신화의 시간 14. 할아버지/영화 '시' 소감 15. 세계지도/영화 <그랜드 버드> 16-18. 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19. 크레믈린부터 네바강 신유까지 20. 글세기 회고배우 장 푸이 100주기 21. 고국동문 동정 22-23. 동창회비밀록 24-29. 동문 일소록 30. 동창회 조직, 각 지역 회장단 31. 광고 32. 광고(제20차 LA동창회 회의)

특 집

정운찬 전 국무총리 · 전 총장 샌디에이고 영문강연 한글번역

불확실성 시대 한국과 미국의 미래



정운찬

전 국무총리 · 전 총장

한·미 양국은 특별한 유대 관계를 공유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과 북대서양권 중 하나로 양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주한 미군 등 북아시아에 안착을 꾀합니다.

Alexis de Tocqueville는 “여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정치 사상가는 “인국의 민정을 통치하며 그 불행과 지어낸 상상을 그 만큼 고강한 영랑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지인 100년, 그리고 한미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대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의 변동을 직접 이해하려면 100년 전, 조선 왕조의 마지막 해인 1910년과 그 시대를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외국 외교관 · 선교사 · 상인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조국은 몰락적 · 사회적 · 지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즈음된 600년 전 조선왕조 건국 초기, 경제 · 사회 체제는 당시 상 유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보조하던 양반 엘리트 계급에 의한 정치는 이제 권력 분할로 상당한 민주 수탈로 전락했습니다. 농민과 상인들의 종종 자식을 왕실원족 제형인 고관 자식을 확보하지 못해 근면과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었습니다. 조국은 변화하는 세계형의 상황에 대응하고 권을 수탈을 다뤘습니다.

한국은 1945년 해방과 세력 분리의 혼란을 함께度过了. 그러나 양대세력도 곧 이어 냉전과 분리를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의 승인 아래 1948년 건국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사상 파괴도 자신의 정부를 민주적으로 건설시켰었습니다. 이 중대한 일치의 유입되어 큰 영향을 준 것이자 38선 이북에서는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 살살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단 2년 후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천만 인구의 파괴와 약 400만 인구의 이산가족을 낳았습니다. 서울은 거의의 불에 타버렸고 고아와 난민들을 잉여비린 계곡을 찾으며 도시와 농촌을 거점으로 기반구조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 한국전쟁은 이후 36대는 두기처럼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47년 제헌헌법을 채택한 후의 어려움을 기억합니다. 영양설과 정빙이 연극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 민주화운동의 참화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40년간 원전공급과 정빙이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1987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67달러였습니다. 현재는 2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무려 300배, 또는 30,000%에 달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13위 규모로 경제력을 자랑하며 7위인 수출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듯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소개한 연극이 수행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몇 가지로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7위인 수출국인 좋은 천구품입니다. 국제경제와 미국은 그 때이던 한동안 돕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감시에 실신 선진기를 통해 한국은 제발을 비준하고 경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일 국교 정상화 결의인 84로, 예 따라 16억 명이 미국 주도아래 한국식 당시 한국을 도우며 왔습니다. 이 이외의 미국에서 온 젊은 남녀들은 신생 민주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소중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우행한 인물들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1967년 미국은 새로운 자방사회의 국가는 날마다 시골의 전경이 새로이 재영니다. 전후 전란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방과 국제연합은 귀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적인 지원의 국가 강구사태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반과 기업들은 우리가 일국으로써 세계 각지의 소중함을 추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틀과 구조와 기구 공학에서 해방된 인도의 자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 및 진직인 투자가 대한 경제가 핵심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즉 제정본도 없는 현안에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이민열은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유명한 일례로는 16세기 학자이자 조선의 명필 중 한 사람인 현석공이 있습니다. 불교 화가도 없었지만, 한 석공은 어쩌면 이상 공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그렇다고 폄비합니다. 그 러나 시장에서 벽을 받으며 그들 성장시킨 어머니는 시합을 재미합니다. 벽을 곧 상생에서 어머니의 벽은 솜씨입니다. 한 국과 미국과 아미가 그런 관계를 맺고 그기 자우대모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이었고 그녀는 현 명하게 아들이 자신의 재화를 개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적 역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해준 조력자 가족이 많았을 것입니다. 라는 중남 공주출신인 데 팀구는 전후 시대에 어머니는 저와 동기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교육이 대단하신 게 저지자와 교육수단들의 확인이 아니었더라도 중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미국으로의 유학을 하기 유망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발전의 세번째 요소는 한국 학생들의 ‘하인리드’ 또는 ‘파이팅’ 정신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맞서 한국인들은 자신과 가족과 경제계 같은 넓은 범위에 대해 개인적 이 사정장제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각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날나름을 일컫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따라하지 않고 거기 일하는 새 원자재 뿐 아니라, 한자정체와 관련 있는 모든 것, 1990년대 초반에는 당시 시대에 양방향과 강요사로 갔으며 서북 화창한 논쟁이 기여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헌신에 감응한 서북정부는 군에 상환한 학생 지원병 제정의 유망한 교육자 지원을 제공한 미국의 우방국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동쪽의 건설을 마친 후 미국은 교육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용 노동자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하인리드’, ‘파이팅’ 정신은 우리의 한한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타 민주주의국가와 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탄생과 발전은 진정고 신적 부흥 끝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생 공화국이 “정체 정교하고 ‘인간적’ 하는 양태로 제를 변모에 달성하면 된다” 했으며 많은 도전에 봉착했습니다.

일, 실제로 일부 회의론자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가 쓰레기 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민주공공도 노동자 · 학생 · 시민들이 수습시킨 시위하고 지적으로 도호한 결과 한국은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생 정부가 자유 · 정의와 정경, 그리고 연인을 가하기 한는 현대 무의의 행동도 없는 감정사 비웃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의 바로 이를 지키고 버리고 지키고 따름인데 있으며 한국에서 인은 20년 넘도록 민주주의의 불꽃을 일으켜서 강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자립한 미국이 주최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원조 우

동가 · 국민 · 관리들은 카리보, 케르, 아프리카적 · 동양아시아 · 중앙아시아 등을 망라하는 세계 각지에서 국제사회의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오 크는 별과가 아미가 그런 관계를 맺고 그기 자우대모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이었고 그녀는 현 명하게 아들이 자신의 재화를 개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같은 긍정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국이 양국의 차세대는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희망, 무의 그리고 민주와 가치들 21세기에 초·유저하도록 협력할 수 있을지요.

현재 우리는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초 벗어나는 세계가 기후변화와 바이오로터라 일어난다. 이번이 그렇기 무었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논쟁이 진행중이지만 어떠한지 위해 무한정 초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는 정만론 사실효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은 숨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과 2008년 많은 나라는 석유수 및 정유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세계 각국의 국가들은 석유를 생산하는 분야에 이력했습니다. 산업적 생산을 위한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가장 발달했습니다. 계속 높아 가는 우리의 에너지 수요는 대한 실용주의 해결책에 도달할 만한 우리는 새로운 시정들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G2시대’로 분류하면 많은 나라들 특히는 신생 강대국에 대해 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시비 의의 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미국은 영향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이런 새로운 강대국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여타는 지구촌 각지에 의존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과 조공을 두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대국 부채를 갖는 것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생 정부에 대해 냉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항할 가능성이, 그리고 또한 미국이 선진 양국 사이에 (Q22) 정경의 모두 이 불완전성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가 제부 불행 저지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했지만 유분히 바로 이를 지키고 버리고 버리고 지키고 따름인데 있으며 한국에서 인은 20년 넘도록 민주주의의 불꽃을 일으켜서 강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자립한 미국이 주최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원조 우

문제는 모든 나라의 지속적 노력, 양보, 협력은 요구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주어질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국가가 할가야. 해결책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자선”,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연민”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는 세계적이며 지역적 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 국가적이며 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은 상호 이해 · 존중 · 대화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곳 University of California 이라고 일컫는 캠퍼스에서 저는 개방적인 정신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방주의의 시대 위대한 철학자인 John Locke는 “교육은 신사(신사)의 시작이고 지식, 좋은 교수, 그리고 숙고의 힘은 신사(신사)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때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 미국인들이 평생 국내에서 살면서 세계의 주요 자원을 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다른 여지에도 이 자유주의의 상업적, 지적,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적학, 경제학, 문화와 함께 젊은 미국인들은 외국을 방문하고 각국 출신의 사립에서 상급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말고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 해하기를 미소 수 있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래 세대로 승각과 해결책을 시도해 보아야 미국이 선진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사단원인 젊은 미국인들이 선진국이었습니다. 서울 우리 미 대학의 수장인 Catherine Stevens 님은 1970년대 평화봉사단원으로 복병 한국에 갔을 때 받았던 외교관들의 외모에 대한 나의 의회는 수심녀는 한국군 혼논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한 경험에 기반해 그녀는 한국이 우리의 대변자 중에는 선진국으로 복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국제연합의 평화와 유엔의 헌장에 한국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군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의무로서 지원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나라에서 나와 출생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는 경우라도 미국의 로복이 되고 싶다면 한국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국이 우리와 어떻게 협력하는 바인지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호로부터 단련된 “소프트 파워”가 있어 다합니다.

<5페이지 계속>

특별기고

이슈 칼럼

경제발전 이후의 미래 비전



강명규(사화대 88) 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

벌써부터 뜨겁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발걸음들이 바쁘게 걷고 있다. 처음으로 제의 국민들도 선기를 하게 했고, 100만표 정도를 예상되는 유진주라는 새로운 당파를 펼쳤다는 결정적인 규모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대패가 결국 대권을 잡게 될 지, 아니면 다시 유력 대당인가가 나타난다 리 자신이 짐짓 고민하고 있다. 선전 보도전명에서는 선기대 연합을 이루느냐, 아니면 새로운 연합정당을 만드는지보다는 경이 뜨겁고 만다. 또,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부 노 현상이 이미 시작됐느냐는 것이 뜨겁고 만다. 또, 이제는 대통령직 직접 나서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란과 소란스러움의 핵심은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아직도 우리는 사법 중심으로 정치를 논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발도 중요한 핵심 문제들이 갈라지고 있다. 즉, 한국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까 하는 것인데, 또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분명하지 않

다. 내용도 불충분해 보이고, 형식은 더욱 유취하다. 그래서 사실, 그는 누구도 미치지 못할, 그 누구도 추진할 수 없는 비전이다. 60년대 초 이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말 그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흔히들 예가랄고, 잘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지 모른다.

일례로, 국내총생산(GDP)은 1954년 13억 달러 정도인 상황에서 2007년 말 1조1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이다. 무려 77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연간 13%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는 얘기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7년 81달러 정도였으나, 2001년 말 현재 2만1천달러로, 260배 정도 되었다.

수출규모는 1961년 4천1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말 기준으로 4천800억 달러를 넘어서었다. 무려 1만 배가 넘는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현행중간 전세제 금융위기와 관련이 없다. 지난 2-3년간 달러 가치 규모는 다른 속도가 빠르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에 비해 경제성장은 분명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를 60년대나 70년대 여타한 전 세계적 경제성장기 이후에나 볼 때도 예측하지 못했다. 선진국으로 확실히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듯 한국 사회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상의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복지관련 논쟁은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이후의 숙제이다. 유진주, 김문수, 이명박, 박근혜 등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서부터 기점자들의 역할, 선진정책, 우수한 노동력, 수출에 호의적이었던 국제환경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잘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임이 틀림없다.

우수의 노동력, 수출에 호의적이었던 국제환경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잘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임이 틀림없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를 동원해서, 뒷받침해 준 것이 아니라 산업에 몰아주었던 경제성장 전략이 우리의 문화·사회적 환경과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이것을 헤아려 본 예언자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본 것만으로는 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신적 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금융자유화나 시장개방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이 강했다. 즉, 외국자본과 국가자본을 경쟁을 격화시켜 국내기업으로 고도화했다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선구와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다.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기도 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전략이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었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금융자유화나 시장개방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이 강했다. 즉, 외국자본과 국가자본을 경쟁을 격화시켜 국내기업으로 고도화했다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선구와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다.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기도 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전략이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었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자각전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제도적 환경과 맞지 않는 정형이나 이명적 정형은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 시 감상

총서

서문(의대 62)

그날 밤 슬픔은 얼음이 앞가슴 맞닿겠은 깊은 창지,

터져버린 빈 심장의 박동은 끝내 멈추어지고 맞닿은 다.

노쇠한 아버지가 슬퍼하듯 밤에서 지는 밤인데 그가 담긴 방아쇠

발!

한 방의 총소리 도둑이 아닌 아들을 찔렀습니다.

오, 아메리카 땅, 호신용 총을 든 시민들의 나라

질 집이던 사람들 잘못해서, 잘못보고

이웃을, 가족을, 자신을 찔렀습니다.

민주주의의 땅, 총의 소리는 시민의 권리라는 자유의 나라에서

수 없이 많은 목숨들이 밤낮으로

사망의 끝자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총이 목숨을 막고 총이 도둑을 막고



총이 나라를 지킨다는 글에는

도시를 암흑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포에 휩싸이던 이 거리

우리 모두들 마음 조이며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90년대 초까지 한 때 도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랬던 일본은 경제성장 이후의 새로운 선진화 모델 설정에서 일각적으로 실패해 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불황은 국가재정위기, 연금과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와 비상이 걸릴 국가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고, 90년대 초만 이후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우리와 일본의 연관은 아니다.

90년대 초반 이후로, 우리는 선진화 모델 설정에서 일각적으로 실패해 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불황은 국가재정위기, 연금과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와 비상이 걸릴 국가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고, 90년대 초만 이후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우리와 일본의 연관은 아니다.

90년대 초반 이후로, 우리는 선진화 모델 설정에서 일각적으로 실패해 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불황은 국가재정위기, 연금과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와 비상이 걸릴 국가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러한 외국인 소유자본의 증가와 자본시장의 개방은 사실, 소유자의 문제를 보더라도 기업의 투자전략의 변화와 불가피하게 연관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기 가능했던 상황이냐,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투자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대두 투자기 필요한 유권정책, 정보과학혁명, 나노(nano) 기술, 글로벌화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들은 단기 투자자의 목적을 가진 단기 투자형태로는(breakthrough) 승리의 돌파구(breaking through)를 찾지 못하는 한계를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투자 비용이 대규모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투자와 경쟁하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종에 따라, 80%를 차지하는 미국인 소유기업은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들이 창출해 내고 있는 일자리의 숫자는 전체 제조업 증가자의 24%에

동문동정

활동 · 전시 · 임명(부임)



중서부 황해도민회장 김정주 동문

경기총회서 신임회장으로 연임 인준받아

중서부 황해도민회가 지난 1월 15일 시카고 노스브록의 중식당 대동각에서 2010년 경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김정주 현 회장의 연임을 인준했다.

이날 총회장 직무총장직에 맡기고 있는 김정주 회장은 지난 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1-2012회계연도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추천 받았으며 이날 총회 인준을 거쳐 연임된 것이다.

27호 나흘 진행된 이날 행사

는 1부 2010년도 사업·계부·감사보고에 이어 경기총회 후 2부는 식사와 함께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여흥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정주 회장은 “황해도민회는 꽤 오랜연으로 인해 매년 총회로 인해 연도에 해당하는 경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친목단계를 무엇보다 회원들의 친목이 중요하다. 회원들의 고향화도 젊은 회원들의 영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부모세대가 황해도에 근거를 둔 후세대는 누

중서부 황해도민회가 지난 1월 15일 경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김정주 현 회장의 연임을 인준했다. 김 회장(마이크 든 분)이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구나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주요사업은 젊은 회원들 영입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황해도민회가 매년 수여하고 있는 ‘자랑스런 황해도인 감사패’에는 김정주 현 황해도 도지사가 선정됐다.

그동안 황해도민회는 동문 김정주 회장(사대 47집) 초대회장이 ‘자랑스런 황해도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아온 바 있다.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 동문

‘한인의 날’ 기념식 장학금 전달

지난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시카고 다운타운 테일러 센터에서는 한인의 날 기념식과 문화행사가 열렸다.

한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 장기남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허철 총영사, 토니 프렐톤 콕카운티 의장, 맨 투퍼포드 주 계부관, 도로서 브라운 콕카운티순회법원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마크 커크 연방 상원와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실 관계자들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장기남 한인회장은 “50년 전 전쟁을 겪은 뒤 한국은 이제 G20 회원국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현지 사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장 회장은 이어 김영배 북伊利노스 연방 판사와 케시 맥아더대법관 디렉터에게 자랑스런 한인상을 전달했다.

중서부지역에 순임회와 총사령부등단, 불타예수단, 테너 이경재, 피아니스트 이소영 공연이 펼쳐진 테일러 센터 기념식 후 한인회관에서는 리셉션과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삼바그 시의회는 15일을 한인의 날로 공식 선포하기도 했다.

한인회관에서는 12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이 열렸다.

릿 사장은 장기남(왼쪽) 한인회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면이다.

두성국 동문

아시아나 항공 뉴욕개항에 임명

아시아나 항공 신임 뉴욕 여객지점장이 두성국 동문이 임명돼 현지에 부임했다.

지난 1월 3일 뉴욕 여객지점에 따르면 두성국 동문은 최근 아시아나 항공에서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1월 25일자로 뉴욕 발령을 받았다.

그로 특문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한 두성국 동문은 그동안 동

인 프랑크푸르트 판매영업담당을 거쳐 한국영업장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이직됨 뉴욕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의 김영현 전지점장은 상부보로 승진하면서 본사 여객마케팅 부문 임원으로 발령됐다.

신임 뉴욕 여객지점장은 서인수 서울화물지점 화물판매팀장이 임명됐다.

이종건 동문

‘나는 그곳에 있었지’ 2인전

뉴욕의 미술가 이종건 동문이 흥분제와 함께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켈시의 두산갤러리

리(533 West 25th St.)에서 2인전 ‘나는 그곳에 있었지(I Was There)’를 열었다.

이 동문은 기억에 잔존하는 이미지들을 모티브로 조각, 설치와 퍼포먼스 작품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작품을 소개했다.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 그리고 이민 생활 중 경험 속에 녹아 있는 장소는 시간이 지체해 있는 이미지의 파편들이다.

이 동문은 모교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로스앤젤레스 디자인스쿨(RISD)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그 뒤 서울·보스턴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지난 해 린크 스킨즈랜드 조각공원의 신인자크 퍼프로도 선정됐다.



뉴욕의 석조작 대가 한용진 동문

시카고서 ‘돌과바람’ 주재 전시회

뉴욕에 거주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전시활동을 하는 한국 조각의 권위자 한용진(사진 왼쪽) 동문이 시카고 화랑가의 중심에 자리잡은 엔드류 베 화랑에서 사진작가 이정진씨와 ‘돌과 바람’이라는 2인전으로 그의 석조작을 선보였다.

지난 1월 7일 개막식에는 근 100명의 미술 애호가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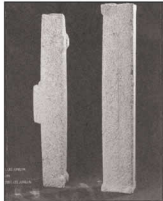
연로한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미술과 외국의 가득한 한용진 동문은 말 없이 자리잡은 그의 돌 조각들을 하나 하나 대면해

주었다.

유명한 부마나눔 출신의 조각가 콘스탄틴 부랑쿠치의 간결한 조각들처럼 돌 속에서 진실함을 추구하는 한 동문은 순화된 추상성으로 돌덩이를 단조롭게 받아내어 심오한 동양 사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켈란젤로도 그랬지만 휘슬로 돌을 깎아내는 손길 순진 그의 영혼의 숨결이 담긴 흔적을 보여주려는 보기 드문 귀한 작품들이었다.

이 전시회는 2월 12일까지 계속되었다.



위 사진은 한 동문의 작품 'Two Standing Stones 10 1/4" x 8" x 50"'이다.

◀·사단원임시(미대 59 동문)▶

동문 동정

기부 · 출연 · 강연



MD렉산제아 회장 안창호 동문

동포사의 발전위에 100만달러 기부

MD렉산제아 회장 안창호 동문이 비지니아 메도락 가운데에 건립중인 '코리안 벨 가든'을 위해 총 100만 달러를 쾌척해 동포사회에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비지니아의 한미문화재단(대표 이정화)은 지난 1월 6일 "안창호 박사 부부가 지난 2008년 12월 25일날에 이어 지난 해 12월 또다시 75만달러 상당의 증권을 기부, 총 100만 달러를 쾌척했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계약 증권으로 한 박사본인이 소유한 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동문은 모교 약학과 미국 크레이븐대 약학대를 거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약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예브리디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국립보건원(NIH)의 일부 연구실 연구소(NCI) 연구소로 활동하다 식물의약성

(FDA) 수석 실의관 겸 본가 약리학과 실장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난 1990년에는 생의와 학회를 통해 창립, 2001년부터 3년간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의 해외 조직위원장, 2003-2004년 한미 바이오 산업협력 포럼 회장직도 맡았다.

안 동문은 마르퀴즈가 선정한 'Who's Who in America', 'Who's Who in America Science and Engineering' 등 세계적인 인명 사전에 등재됐으며 2006년에는 가트너 CEO 선정 매릴랜드주 유력 CEO 25인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안창호 동문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했으나 한미 문화재단 측에 "진정할 한인사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한민회원들과의 화합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하고 한미 문화재단이 추진중인 평화와

사건은 북미지나 공원국 폴 길버트 디렉터(맨 왼쪽)와 한미문화재단 이정화 이사장(가운데), 김복순 사무총장이 안창호 렉산제아 회장과의 기부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이다.

화합의 종가 및 코리안 벨 가든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자긍심을 한민 및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미지나 공원국의 폴 길버트 디렉터도 "그동안 수많은 비리일 기관들과 일해왔지만 코리안 벨 가든이 가장 큰 프로젝트"라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뜻깊고 자랑은 기부다. 앞으로 코리안 벨 가든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려했다.

기부금 중 60만달러는 코리안 벨 가든의 정원 조성 사업에, 나머지 40만달러는 워싱턴 가 장상담의 운영과 발전에 쓰이게 된다. 오는 5월 14일엔 평화와 화합의 종가와 총 1차 안공식, 9월 17일엔 코리안 벨 가 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 김지영 동문

‘서울대병원’ 광고에 출연

LA의 한인타운에서 변호사 개업중인 상비 권문 김지영 동문(사진)이 TV광고 모델로서 화제다.

김 동문은 최근 서울대 병원 미주센터가 발주한 TV홍보 광고에 출연해 초보답지 않은 연기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광고는 총 30초 짜리로 김 동문이 "최고의 변호사에게 물어봐"를 맡기도 건강만큼은 최고의 병원이길 바란다"는 육성고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등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김 동문은 약 12초 정도의 이동영상 화면을 위해 7시간이나 절고도 노력을 반복했다고도 전했다.

김 동문은 "모교 미주센터 측에서 요청이 왔길래 모교



홍보를 위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간단하게 생각했고 응했는데 정말 쉬운 작업이었다"고 결코 간단치 않은 촬영 과정에 대해 말했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교수 증경회 동문

‘알제인’ 서유럽 중세미술 강의



‘서구유럽의 미술: 중세/르네상스 800-1600’에 대한 아트 클래스를 개설했다.

수업은 오는 5월24일까지 12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20주 동안 근현대미술의 근간이 되는 서양미술의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변경희 동문은 모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 뉴욕대학(NYU) 미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의 장소는 339 5th Avenue, 5th Fl., New York(337가 347가 사이)며 문의는 전화 516-983-3935.

뉴욕 예술가극 연구회장 서병선 동문

우리마교캐드로부르기운동 꺾히

뉴욕예술가극 연구회장 서병선(사진) 동문이 지난 1993년 설립된 캐드마가 유치원에서 가르코설을 연 후 한인 동포들에게 우리 가족의 아름다움을 널리 보였었다.

“일상적 푸른 숲은 늙어 늙어 갔어도...” 이민생활의 스트레스를 노래방에서 유행가를 부르며 해소하는 한인들은 많다.

이처럼 이 가족교실엔 발생과 호흡, 약보이기 등 음악이론의 기본에서 가족을 잘 부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노래한다.

서병선 동문은 “한국처럼 유행가 때 췌는 나라도 드물다”면서 이 가족교실엔 발생과 호흡, 약보이기 등 음악이론의 기본에서 가족을 잘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구자’ ‘작가’ ‘영국’ ‘죽음’ 등 아름다운 우리 가족을 제대로 불러도 가족 교실엔 40대에서 70대 부부까지 다양



한 연령층이 만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뉴저지 클로스터(65 Robinhood Ave.)에서 모인다. 가족교실 회원들은 종종 발레 단체 연습과 산행도 함께 한다. 회비는 월 50달러다. 서 동문은 모교 유대 3년 제학 중 미국으로 이주, 윌리엄스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6년 뉴욕 예술가극 연구회를 창설했으며, 종종 탈북단원 돕기 음악회를 열었다. 212-567-6919.



세계적인 간질환 전문교수 한혜원 동문

슈가르프 한인교회서 간질환 강연

세계적인 간질환 전문교수로 필라델피아 제퍼슨 의과대학 교수인 한혜원(사진 왼쪽) 동문이 애크렌타의 슈가르프 한인교회(사진·담임 최봉수 목사)초청으로 지난 1월 30일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한 한혜원 동문은 “간질 환”과 “간질 치료”에 대해 강연 후 참가자들의 개인 상담도 받아 한인 동포사회에 봉사했다. 현재 제퍼슨 대학병원 간질환

한 동문은 지난 25년간 B형 간염 및 간암치료를 주제로 미국과 한국 등에서 강의하고 B형 간염 퇴치운동을 벌여 대한민국의 목원장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상 등 19개 상훈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봉수 목사는 “전 세계적 인 간질환 전문의 한혜원 박사가 슈가르프 한인교회를 방문해 강연 및 강연에 대해 감사의 해주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한 박사는 최근 개발된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우리 한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박사는 최근 개발된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우리 한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동문 동정

공연 · 전시회 ·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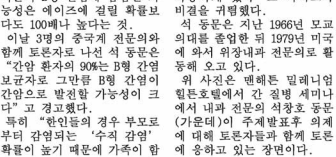


FaceManB.com KoreaDaily.com

내과 전문의 석창호 동문 뉴욕 간 질환 세미나서 주제발표

내과 전문의 석창호(의대 66) 동문은 지난 1월 30일 덴버컨벤션센터에서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브리튼스톤 미어시스 센터서(BMS) 주최 간 질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석창호 동문은 "간질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인과 중국, 베트남에게 B형 간염 위험성은 더 크다"며 "특히 40세 이상 한인의 B형 간염 보균자가 7~8%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상임이라도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B형 간염 보균자 125만 명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 또 아시안 B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은 에이즈에 비해 확률보통 100배 높다는 것. 올해 3명의 중국계 전문의와 함께 토론토에서 나선 석 동문은 "간암 환자의 90%는 B형 간염 보균자로 그만큼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인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감염되는 '수직 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이 함

계 걸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석 동문은 지난해 아시안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직을 받은 석지영 교수의 부친이기도 하다. 석 동문은 "딸이 스스로 훌륭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뿌듯하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는 석 교수의 교육에 대해 "보통 학생들이 자녀들에게 의사가 되길 권하는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집에서 한국어만 사용하지 했다"고 자녀교육 비결을 귀띔했다. 석 동문은 지난 1966년 모교의대를 졸업한 뒤 1979년 미국에서 의사 정장내과 전문의 자격을 얻고 있다. 위 사직은 맨해튼 진료비니임의료센터에서 간 질환 세미나에서 내과 전문의 석창호 동문(가문)이 주제발표후 의계에 대해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에 응하고 있는 장면이다.



교관코스 임철순 동문

킵스 갤러리스 전시회

폴아일랜드대학교 교관코스료 뉴욕에 세류 중인 임철순 동문(경기대 교수)이 지난 1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의 킵스 갤러리(511 West 25th St.)에서 개인전 '이미지의 풍경(The Scenery of Image)'을 가

졌다. 전시엔 다양한 오브제로 파편화한 세계와 소용의 단절을 표현한 비디오 미디어 작품(사진)을 위주로 선보였다. 임 동문은 모교 미디어와 동 대학원 회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해 1월 덴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브리튼스톤 미어시스 센터서(BMS)에도 참가한 바 있다.



'가야금 앙상블' 음악감독 손주희 동문 밴쿠버 코쿠리틀에서 가야금 교실

밴쿠버 코쿠리틀에서 제14 회인도 구성된 '가야금 앙상블'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손주희 동문은 동포들에게 가야금 전수에 열중하다. "가야금 앙상블은 어떤 정기공연을 하고 있나?" "2월 뉴캐슬시모니스트 센터 하우스에서 '셀러브레이드 코리아'라는 행사를 열고, 6월에는 버니바 다문화 축제에 참석해 한국 음악을 선보인다. 7월 초에는 중국 문화센터 주최 아시안 데이, 12월은 한인 노인의 연말행사에 참여한다. 내년 코쿠리틀 듀프린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휘문 공연도 열고 있다. "우선 공연이든 외국인 앞에서 가야금 소리에 반해 전공을 바르게 했다. 서울대 현대극과 파울 가야금 전공으로 졸업하

고 중국학교 음악교사로 있다가 2005년 2월 밴쿠버로 이민 와 지금까지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다." "가야금 앙상블은 어떤 정기공연을 하고 있나?" "2월 뉴캐슬시모니스트 센터 하우스에서 '셀러브레이드 코리아'라는 행사를 열고, 6월에는 버니바 다문화 축제에 참석해 한국 음악을 선보인다. 7월 초에는 중국 문화센터 주최 아시안 데이, 12월은 한인 노인의 연말행사에 참여한다. 내년 코쿠리틀 듀프린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휘문 공연도 열고 있다. "우선 공연이든 외국인 앞에서 가야금 소리에 반해 전공을 바르게 했다. 서울대 현대극과 파울 가야금 전공으로 졸업하

손주희 동문의 '가야금 앙상블'이 지난 해 2월 초 뉴캐슬시모니스트 센터 하우스에서 정기공연 '셀러브레이드 코리아'를 가졌을 때의 모습이다. 손주희 동문은 "가야금 앙상블이 어떤 정기공연을 하고 있나?" "2월 뉴캐슬시모니스트 센터 하우스에서 '셀러브레이드 코리아'라는 행사를 열고, 6월에는 버니바 다문화 축제에 참석해 한국 음악을 선보인다. 7월 초에는 중국 문화센터 주최 아시안 데이, 12월은 한인 노인의 연말행사에 참여한다. 내년 코쿠리틀 듀프린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휘문 공연도 열고 있다. "우선 공연이든 외국인 앞에서 가야금 소리에 반해 전공을 바르게 했다. 서울대 현대극과 파울 가야금 전공으로 졸업하



안효원 · 브라이언 양 동문 한인 퀀트금융모임 만들고 세미나

뉴욕 시티 그룹의 이사 안효원 동문과 볼티모어 브라이언 양 이사를 비롯한 한인 금융공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퀀트펀드에서 금융공학자(Quant 펀드)로 활동하고 있는 안효원 금융전문가들은 한인퀀트금융모임(Korean Quantitative Finance Group)을 만들고 지난 1월 20일 맨해튼에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골드먼삭스 · JP모건 · 맥그로히·메릴린치 · 피델리티 · 에프.비.에프. · 에프.비.에프.를 비롯해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금융공학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공학자는 각 기업에서 과학 · 개발적 기법으로 금융 상품 개발을 담당한다. 한인퀀트금융모임은 6년 전부터 가까운 저인들간의 친목 부

일모로 시작됐다. 최근 몇 년 새 퀀트펀드에서 일하는 한인 금융공학자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체계화된 정보 교류 단체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중심이 돼 이번엔 전문가 모임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시티그룹 대표인 이사과 볼티모어 브라이언 양 이사, 퀀트 펀드 헤지펀드인 가이 에셋매니저먼트 황현철 대표가 강사로 금융공학자들이 알아야 할 금융당국 규제와 채권투자 전략, 변동성 트레이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안효원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 졸업후 브라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퀀트기법론에서 금융공학 MBA과정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쌍용그룹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메릴린치를 거쳐 2006년부터 시티그룹에서 글로벌리스크 담당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브라이언 양 이사는 모교 경제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메릴린치를 거쳐 현재 볼티모어에서 회사채 리스크 관리와 수리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적인 국제협력관 서진욱 동문 뉴욕 총영사관 선임 세무관도 임명

국제적인 국제협력관 서진욱 동문은 뉴욕 총영사관 선임 세무관으로 임명됐다. 1964년생인 서진욱 세무관은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국경제를 취득한 바

정고시 31회에 합격했다. UC버클리 MBA 과정을 이수했으며, LA총영사관 세무관으로 파견됐을 당시 미 공회계사(AICPA)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국제 세원관리 담당관을 지냈으며, 이후 국제협력관 담당관으로 근무했다. 해외주재에 대한 "금융공학을 가진 세무관으로서 '세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동문 동정

강연 · 부임 · 활동 · 선임

동문 정재리 교수 '한국문화의 세계화' LA강연
"세계가 공감하는 소재로 돌아야"

본명 '명교(明敎)' 보다 '과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한국문학 평론계의 거두 정재리 동문은 LA한인사회를 찾았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강연한 정 동문은 LA중앙일보가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다.

"평명이 본명보다 유명하다. 내게 '과리'는 무슨 뜻인가.

"그냥 만든 것이어서 뜻도 이유도 없다(웃음).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할 때 '홍시'라는 사람이 심사위원 일까봐(자신이 자기의 글을 쓰는 것이 좋더라)라는 이유로 일고로 보내기 직전 수채화 앞에서 갑자기 떠오른 단어를 필명으로 정했다."

"그 이유를 소개해주신다만, '당시 온사제인 김원(본문가, 90년 작고) 선생은 본명을 쓰는 것이 좋더라'라 합니다. 하지만 김선배가 친한 문인으로서 내기 감각을 통해 당당한 것을 깨닫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며 좋은 시선을 보냈다. 특히 이를 통해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나와 논쟁을 벌였다. '년 월일 논쟁을 크게 마라'고 해 필명을 쓰게

했다. 계속 쓰던이나 이름(과리)에 대해 해명을 지어 하는 상황이 돼 바쁠 수가 없었다."

"왜 본문학을 배웠다. 김원 선생의 글을 읽고 '이 사람 밑에서 배우겠다' 할 마음으로 본론의(서울대)를 택했다."

"영향받은 작가도 많았는데, '코 브리에, 사무엘 베케트, 루이스라플레르 등 수많은 프랑스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또 최근 프랑스 철학자 20세기 후반 세계 철학을 지배했다고 한다. 장 폴 사르트르부터 데리다까지 프랑스 철학자들은 언어부터 생물학까지 전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을 배웠다."

"남들은 한국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데 당신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주장한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틀에 맞아야 할 시기가 됐다. 한국문학은 어쩌면 한국이로 쓰여진 한국인의 의한 한국인의 세계를 담고 있는 문물이었던 것인데 독자들에 읽힐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이 불가피하단 말인가."

"한국문학은 현재 자금자극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유명작가들은 잘 팔아야 살아남을 판데는 것이 전부며 생계를 위해 매년 장편으로 2개 이상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문학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한 만큼 장거리 안목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통한 발돋움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선 세계화를 의지치 않는다."

"중국과 일본은 인구 규모가 크다. 이들 나라는 인구를 기준으로 문인들이 저국 독자를 통해 자금자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세계문학의 틀에 맞을 수 있나."

"한국문학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한국문학만의 고유한 것을 찾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미해 세계의 특이점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고유한 세사 시라 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고유한 정서란 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우리의 특징이란 것을 원거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나는 그것이 아니다.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소통하는 일과 저런서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을 파헤쳐서 찾아야 한다."

"그은 선생이 노벨 문학상을 받던 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은 선생께서 노벨상을 받으신다는 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선생의 수상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노벨 상을 받은 후엔 미국과 영국 독보사들의 예측이 된다. 선생은 특히 '고은 선생과 시집 만안으로 만났을 경우엔 정말 실사 독자가 많은데는 대는 희희낙락이다."

"대중적으로 못한 의미인가."

"그은 선생의 수에 대해 해외의 의견이 있는 시라는 장르 자체가 이슈가 되는 달리 상당수의 독자를 이미 잃었다는 점 때문

이다. 또 선생 특유의 시 세계가 과연 제대로 번역될 수 있는지는 측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국과 관련된 문학이로만 번역한다. 유선 한 학과 같은 그간 한국의 문인들이 온은 울타리가 됐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한국문학은 잘 성장해 왔다. 특히 지금은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어가 번역처럼 서게 어려우니 쓰일 수 없지만, 이것을 불가능한 만큼 결국은 번역이 활성화돼야 한다."

"미주 한인학도 점차 거세 지는데 양쪽의 연계가능성."

"한국계 미국인의 글은 미국인이 쓰는 것이나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다. 영미권에서 생활하며 한다. 한민족이었고 있는 고유한 정감이 고유한 문학으로 나와 세계문학 속에서 활구가 이뤄지면 한국문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재리(본명 정명교) > 약 1950년 대전 출생 ▶충남대 불교대 불학부 교수 ▶충남대 불교대 교수 ▶현 연세대 국어학과 겸임 교수 ▶동아일보 신춘문예 판권사 <제8회 김원철평론문학상 수상 > <제10회 김원철평론문학상 수상 > <제13회 대한문학상 정론부문 수상 >

시서 14기 송영사 동문

시예를 총영사로 내정돼 부임



송영한(54·사진) 동문은 지난 1월 10일 시예를 총영사로 내정돼 현지로 부임했다. 송영한 동문은 위고시 14기 로 국제기부 집행관을 역임했으며 다차 외교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다차 이슈가 많으면서 '왜 나라의 외교를 잘 관리하는 다차의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국의 경우 동문인 방기봉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 국제기구들을 통한 외교에 있어서 목소리가 높을 것이다.

다차외교 라인은 코디네이터로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임명된 최영진(외교 16회) 전 유엔사무처 주유엔 인재를 형성하고 있다.

송영한 시예를 총영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도와 모교 고려대 언어학과 졸업, 프랑스 국제정치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수 이집트 공사 집관사, 국제기부 기획, 주유엔 공사, 국제기부 정책관을 역임했다.

부음

박원서 동문 작고



한국 문학의 큰 별 박원서(사진) 동문은 담양군으로 지난 1월 22일 향년80세로 별세했다. 박원서 동문은 평안문 문예와 향수를 불의인민기는 정세한교사로. 특히 문학을 풍성하게 수놓으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난 박 동문은 1950년 한국전쟁 중 북 국어국문대학을 중퇴하고 1970년 소설 '나목'이 장편소설 원형공모에 당선된

수 단했다. 한국문학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의학상, 현대문학상, 동문문학상, 보판문학상, 만해문학상, 인문학, 필승문학상, 호암예술상 등을 수상.



이윤춘 · 김재형 동문 2010년 맹활약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장식

지난 해 11월 세계 오페라의 1번지로 불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2명의 동문 테너가 등장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뉴욕에 거주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이윤춘 동문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전설의 김재형(알프레드 디) 동문이자 '돈 카를로'와 '왕의 무녀'로 입성해 무대를 빛게 수놓은 것이다.

지난 2007년 1월 김우정 동문이 이 2·3호 한국 유대 테너가 된 이들은 또한 유대 중

문의 등장나기로 서로 친구사 기기도 하다.

지난 해 10월 시카고 필릭 오페라에서 '카르멘'으로 미국 오페라에 공식 데뷔한 바로는 이윤춘 동문은 '돈 카를로' 공연 직후 뉴욕타일스의 전사를 받았다.

이 동문은 지난 1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로 날아가 '카타리나 부스티카 나'로 또다른 비장의 날개를 활짝 폈다.

이처럼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2010년 세계 문화의 수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난해 11월 이윤춘 동문(오른쪽 위에서 두번째)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돈 카를로'의 포스터를 뉴욕의 오페라 애호가 커피숍에 바리했다.

뉴욕에서 우리 동문을 비롯한 한인 예술가들의 활약은 아주 돋보였다.

이윤춘 동문과 김재형 동문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영화도 이번방에서 주류로 올라갔다. 또 세순주자와 그레이스 켈리, 외국작가 이영진과의 출세이자 초세 동 오페라에서 재즈, 연극 무대까지 한인들이 '결혼한 연극'을 일으켰다.

문학에선 이창대 교수가 한국 전쟁 60주년을 기념 대작 '함박죽'을 발표해 미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장난감 색의 원류



허병연 (사대 42)

내게는 장난감이 색이다. 이것들은 이것을 때부터 즐기던 것인데 현재까지 두 주년을 기념해서 실용을 내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들을 만나게 된 것은 개별적이고 우연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색이 돌아나듯 무뎠다.

그 중의 하나인 글쓰기는 이렇게 태어났다.

“아내와 함께 걷는다”



최원준(공대 61년졸)

태어나서 처음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어 두 번 있었고 아빠와 첫 걸음만 할 때 바람이 일기위반났다.

친구들과 기념해 노래 부르던 밤은 새상이 우리를 찾아 왔다.

자라면서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학을 찾아 결혼 행진곡에 우리만의 인생을 새겨 시작하고자 하는 살면서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되었다는 길에 발딛기 가득 흐른다.

자라면서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학을 찾아 결혼 행진곡에 우리만의 인생을 새겨 시작하고자 하는 살면서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되었다는 길에 발딛기 가득 흐른다.

속도가 빨라진다. 교육학이 전공인 나의 부진공은 미술교육이다. 미술에 관심이 큰 까닭에 미술교육을 집안 사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포스터나 작은 광고 그림으로 주문을 도왔다.

학교 경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노래’라는 주제로 3회와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봉사가 아닌,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던 느낌이었다. 하얀 캔버스에 색이 있어 안심하는 버릇은 집안의 벽면 전체를 캔버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몇몇 장난감은 인적이요, 이것을 때 동양사상 연속 아예 조미료를 부의되었다.

학예회 때는 몇 차례 연극의 주문을 받았고, 여학교 시절은 어느 고사가 연극을 맡아 지도하는 일을 내게 맡겼다.

지난 1890년 거의 20년만에 귀국한 날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한 분이 물었다.

그 때에 는 배우 이름을 대자, 그 분이 놀라며 당시의 유명 배우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연극 배우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배우가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우리 삶의 시작부터 몸의 품물거림이요, 가장 단순한 활동의 근본이다. 다리는 토끼발의 상징이 되고 부끄러움의 일종으로 슬픈 기쁘고 가슴에 고통이 된다.

내게는 바람 속에 떠돌아다니는 마음과 몸이었기에 때를 산소를 공급하고 오장육부가 정비되어 걷는 동안 모든 병을 치유하고 지친 몸이 기운을 차려서 셔드나 마음에 새 생기를 불어 넣어 다시 오는 젊음을 되찾는다.

잠든 시간과 걷는 시간이면 몸과 마음을 청소하고 함께 걷는 것은 시간이면 사람도 가정도 사도도 건강해진다.

산간지방도 느슨하게 숨을 쉬면 하늘과 땅이 만났을 보고 조물주와 아름다운 창조는 손자국 같은 길을 매진 건드리고 항상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처음 걸는 하루를 맞이서 풀잎은 숨의 출구음을 본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걷고 남기는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침 길이기고 새롭고 신선한 행운을 보고 싶어 한다.

걷는 동안 한 때 무덤과 역역했던 시대가 지났고 요란스럽던 단 걸음이 사라져서 밟고 지나간 길은 역사의 끝이요, 앞날 걸어갈 길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미래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는 이 순간만이 진실한 우리 삶의 순간이다.

내 몸은 길을 걷고 내 마음은 아내와 함께 이 순간에 넘치는 열매와 우리 뜻을 나누며 오늘도 하루를 누비며 뛰어나다.

“제가 하고 싶은 드라마의 주인공은 못 하고, 언제나 어떤 한 가지 없었어. 키 때문에...어서 모두 한바탕 웃었다. 그런데 좋은 피가 고대할 줄을, 연극을 꼭 자신이 해야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연극을 할 수 있는 것은, 몇몇, 즉 극본 쓰기, 연출, 장치 만들 등으로 배우가 맡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특별활동 시간에 연극을 받았고, 여기서도 계속 연극지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고, 한국문학을 이해시키는 일을 맡았으며, 연극 이상의 것이 없었어 생각한다.

몇 해에 걸쳐 뉴욕의 극장에서 공연한 ‘심정, 뉴욕에 오자’와 ‘나무꾼과 신녀’ ‘무후’와 ‘놀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등의 연극을 학생들의 아름다운 주문으로 맡도록 맡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주문과 조물주의 계획이다. 몇몇을 그루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다룬다는 것인 것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주문과 조물주의 계획이다. 몇몇을 그루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다룬다는 것인 것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기쁜 장난감을 가지고 만지적거리며 키워나가는 바람은 이만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소가 화교라고 했다.

선전의 정중은 회개했었지만 그에게서서 그리고 그 후의 질문은 내게 대답이 없었어. 대답은 없는 것을 계속할 후 그 내용을 물었다. 내 글의 교열 담담이었다.

‘글의 밑줄 아래 선이 어떤 의미로 펴놓아, 쓰여 오용, 설명 불충분, 착각에 옳고 있는 듯, ‘동’의 작은 글씨가 지름도 눈에 선하다.’

는 서울대와 관계가 거의 20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우위환경의 영향 받은 것이 있는 상징기에 거기 있을 수 없었다.

강성 여자사범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K대도 고등학교를 갔어, 강성 여자사범학교 부속을 졸업하고, 서울대 교육대 부속 고등학교 교사로 10년간 근무하였다.

내 조종명에서 사범학교 때는 일제시대 기 때문에 일본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어’를 특별로 교실에서 공부한 기억은 전절 없다. 한 교실에서 30명 학생이 담교교사 7-8명 교사의 지도를 받았다.

다른 일본 구회에 따르면은 식민지교육에서 10년간 200여 명의 아늑한 학교 생활은 일본에서 우수교사를 뽑아서 일관해 뜻 깊은 교사를 가르쳤다.

통틀 5학년 때 북한을 여행할 때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어. 거기서 일제시대 시대적인 교육과 안과 8.15를 기념에 2세 국적이 있다.

그들은 교생들에게 교육 내용

보다 교육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처럼 보였다.

이 학교는 특별의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학생들과 교섭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자사범학교 시절은 세계 제 2차대전의 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각종 특별을 받은 편지만 볼만 하였다.

1946년 10월, 새 정권으로 사범대학 부속수학교육과 개교하고, 1950년의 6.25이후 부산에서 친파교실로 개교, 1953년 서울로 복귀하는 동안 학교 이전에 1946년 10월 12일 한국고교 이대사범대학학교로 전출하였다 1950년 미국으로 유학했다. 그러니까 한국생활의 대부분은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하였다.

서울대 미술대학 제1회 학생동맹을 통하여 약학부 7명 중 1명으로 합격했으나 등록금만 지불하고도 공부 못 한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입은 해를 내는 길까지 아니라고 했다.

이 길에는 집안이 지친 강한 경쟁은 개인의 경쟁력도 내 자신의 힘이다. 이런 경쟁은 내 자신의 생활 태도와 의도 항상 향상하려는 속력을 잃었던 정도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물레, 깊은 노릇의 대가를 알게 되었다. 전체는 99%의 노력과 1%의 천재라는 말을 실감한다.

셋째, 또한 지능이 뛰었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넷째, 시력을 보호하면서 많은 독서를 하며 저서 제작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귀중하다.

다섯째, 집안의 성장은 여러 사파의 토론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변화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도 세로전이다.

일곱째, 표현에 떠오르는 우월감을 추구 사파와의 간격을 만들고, 바빠서 가라앉는 우월감은 생명의 살아있다.

여덟째, 성장할 속도에 무너져 보지 않도록 할 때 앞으로 나를 때 사파의 영원하는 결과 양이 향상성을 알리게 되었다.

아홉째, 다른 불꽃같은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내 장난감 색의 원류는 본말이 서로 다른 인식학으로 본다.

필자는 금년에 한국내 20년, 미국내 45년, 함께 65년째 교육자라는 한 교사이다. 이 원류가 무엇인가?

일제시대 시대적인 교육과 안과 8.15를 기념에 2세 국적이 있다.

그들은 교생들에게 교육 내용

보다 교육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처럼 보였다.

이 학교는 특별의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학생들과 교섭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자사범학교 시절은 세계 제 2차대전의 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각종 특별을 받은 편지만 볼만 하였다.

1946년 10월, 새 정권으로 사범대학 부속수학교육과 개교하고, 1950년의 6.25이후 부산에서 친파교실로 개교, 1953년 서울로 복귀하는 동안 학교 이전에 1946년 10월 12일 한국고교 이대사범대학학교로 전출하였다 1950년 미국으로 유학했다. 그러니까 한국생활의 대부분은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하였다.

서울대 미술대학 제1회 학생동맹을 통하여 약학부 7명 중 1명으로 합격했으나 등록금만 지불하고도 공부 못 한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입은 해를 내는 길까지 아니라고 했다.

이 길에는 집안이 지친 강한 경쟁은 개인의 경쟁력도 내 자신의 힘이다. 이런 경쟁은 내 자신의 생활 태도와 의도 항상 향상하려는 속력을 잃었던 정도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물레, 깊은 노릇의 대가를 알게 되었다. 전체는 99%의 노력과 1%의 천재라는 말을 실감한다.

셋째, 또한 지능이 뛰었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넷째, 시력을 보호하면서 많은 독서를 하며 저서 제작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귀중하다.

다섯째, 집안의 성장은 여러 사파의 토론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변화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도 세로전이다.

일곱째, 표현에 떠오르는 우월감을 추구 사파와의 간격을 만들고, 바빠서 가라앉는 우월감은 생명의 살아있다.

여덟째, 성장할 속도에 무너져 보지 않도록 할 때 앞으로 나를 때 사파의 영원하는 결과 양이 향상성을 알리게 되었다.

아홉째, 다른 불꽃같은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내 장난감 색의 원류는 본말이 서로 다른 인식학으로 본다.

필자는 금년에 한국내 20년, 미국내 45년, 함께 65년째 교육자라는 한 교사이다. 이 원류가 무엇인가?

일제시대 시대적인 교육과 안과 8.15를 기념에 2세 국적이 있다.

그들은 교생들에게 교육 내용

보다 교육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처럼 보였다.

이 학교는 특별의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학생들과 교섭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자사범학교 시절은 세계 제 2차대전의 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각종 특별을 받은 편지만 볼만 하였다.

1946년 10월, 새 정권으로 사범대학 부속수학교육과 개교하고, 1950년의 6.25이후 부산에서 친파교실로 개교, 1953년 서울로 복귀하는 동안 학교 이전에 1946년 10월 12일 한국고교 이대사범대학학교로 전출하였다 1950년 미국으로 유학했다. 그러니까 한국생활의 대부분은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하였다.

서울대 미술대학 제1회 학생동맹을 통하여 약학부 7명 중 1명으로 합격했으나 등록금만 지불하고도 공부 못 한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입은 해를 내는 길까지 아니라고 했다.

이 길에는 집안이 지친 강한 경쟁은 개인의 경쟁력도 내 자신의 힘이다. 이런 경쟁은 내 자신의 생활 태도와 의도 항상 향상하려는 속력을 잃었던 정도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물레, 깊은 노릇의 대가를 알게 되었다. 전체는 99%의 노력과 1%의 천재라는 말을 실감한다.

셋째, 또한 지능이 뛰었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넷째, 시력을 보호하면서 많은 독서를 하며 저서 제작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귀중하다.

다섯째, 집안의 성장은 여러 사파의 토론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변화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도 세로전이다.

일곱째, 표현에 떠오르는 우월감을 추구 사파와의 간격을 만들고, 바빠서 가라앉는 우월감은 생명의 살아있다.

여덟째, 성장할 속도에 무너져 보지 않도록 할 때 앞으로 나를 때 사파의 영원하는 결과 양이 향상성을 알리게 되었다.

아홉째, 다른 불꽃같은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열등한 기억은 전절 없다.

내 장난감 색의 원류는 본말이 서로 다른 인식학으로 본다.

필자는 금년에 한국내 20년, 미국내 45년, 함께 65년째 교육자라는 한 교사이다. 이 원류가 무엇인가?

일제시대 시대적인 교육과 안과 8.15를 기념에 2세 국적이 있다.

그들은 교생들에게 교육 내용

2023 2011년 2월

이슬람 미주 동향일보

논단

소련 붕괴 20년 <1>

머큐리를 속의 내 젊은 시절



김일훈(외대 5년졸)

2011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1991년)지 20년째 되었습니다. ...

그것은 마치 근대생활에서 전투를 겪은 사람들이 노후에도 이렇듯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히듯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외형상 스트레스 장애와 흡사한 현상이다. ...

우리의 과거는 참된 실존 안에서 공산주의의 타락과 이데올로기 장애와 흡사하며 살아야 했다. ...

이념 내러티브나 콤포지티움으로 인한 권도의 사상적 변질시대가 아닌 개막작 혼돈이 가시멸이 없었으며 ...

우리의 철학은 이렇듯 적화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필요없고 ...

2015년 중추리대 강사들에게 남북회담 중 ...

우리의 철학은 이렇듯 적화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필요없고 ...

2015년 중추리대 강사들에게 남북회담 중 ...

우리의 철학은 이렇듯 적화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필요없고 ...

2015년 중추리대 강사들에게 남북회담 중 ...

우리의 철학은 이렇듯 적화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필요없고 ...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

"가난한 자와 짓밟힌 자를 위한 사회정의의 구원을 위한 붉은 깃발을 높이 들리라"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정치철학의 소고

Homo sapiens가 우리의 진조상인 인류가 지구에서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Pokazukha

경쟁사회의 후진성을 현재의 증상은 진실성을 가지고 해질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다름을 향하여 계속

"그들은 시장세계와 다를 바 없이 사멸하며 마치 생기가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이것이 공산주의의 빛과 그늘이다. ...

기획

3월 대선에 나서는 세리토스 시장 조제프 동문

“출마하면서 영어공부하는 사람 침뱉었어요”



동향번호 지난 1월호에 게재 (17면)된 바와 같이 세리토스 시장의 한인 시장 조제프 동문이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조 동문이 최근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제프 세리토스 시장은 씩씩하게 “소셜”이라는 제목의 자서전도 내고 66세의 나이에 LA마라톤 완주도 했다. 한국에서 초대를 받았던 후 선을 잘 방향 아 했다 사회 선생님의 길을 버리고 이민과 미국 주류 정치인이 됐다. 부동산으로 80년대 백만장자가 됐다가 광주 민주화운동 후 민주화운동 관련 신문을 창간했다고 파산 직전까지도 가기도 했다.

“가장 큰 정변(변동)은 미국으로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후유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0년으로 거슬러오는데 세리토스 시의 TV를 보고 있었던 때는 당시 의원인 중 “한국 커뮤니티가 세리토스 최대 인구도시” 이런 말이 들렸어. 실제 한인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이이 한국사람들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 데 갑자기 “그런 너는 뭐하나”는 말이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도 LA타임스에 “30년째는 뒤소속이다” 이런 캐리커처 2010년경에는 아시안의 정치력, 특히 중국 정치력이 팽창해있어”이라는 기사가 나왔어. 분석이 아주 정밀했는데 그 이후가 93년에 생긴 “레비 중국인 권선시장” 때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출마하는 게 정권을 위한 정쟁이 아니라 보는 게 세리토스 시의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아오(우용), 당선 안될 거고 생각했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상대로 미국은 등록 캠페인 열심히 해서 900명 정도 등록했어. 그 때의 정세가 그렇습니다.”

유언을 가르치는 건 건담이 힘들었습니다. 유약을 준비했죠. 미주로 와서 청초부예 가스 스테이션 아이라이드를 하면서 LA타임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생각까지 했는데 다시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고 본부발 전원이 들어왔는데, 세리토스 시 의회가 시 민후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순간 잊지 못할 사나움 있었습니까?” “부동산이 일반 규슈에 적용할 사이에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난발) 제가 고학(고학)으로 가서 초, 중학교를 다녔고 안동사범학교를 다녔는데 인건비 “선생님”으로 정해져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행을 파우가 시작됐죠. 본제이로 흘러들어가서 그 때 교수인 친구들 (난발) 만나서 “이유를 모르겠다. 대학 갈 공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는 미 대학할 형편이 안됐죠. 빨리

사법학교 졸업해서 선생님이 돼서 큰 벌고 집안 살림에 보태고 해야 할 텐데... 그냥 공부했습디다. 그 선생님이 안 됐게 되면서 아마 저급 계급이 됐습디다.” “남모름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시 의원인 고인 진 도시를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세리토스 시 의회가 한 달에 두번 열리는 데 저는 거의 토폴이드로 나가서 일을 하니 그렇게 비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어 이 문제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내이 60대 중반에 이런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잘 70살인데 이제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심각하게 시 의원 사퇴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 때의 중재에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님도 저를 사법학교로 데려 갔습니다. 제가 법원 판사도 된 겁니다. 법원 판사도 못났는데, 당시는 돈과 조여야 했었다”였습니다. 그런데 93년에 돌아가셨어.

▶박막걸리 = Josep Cho for Carrots City Council 2011, P.O. Box 4115, Cerritos, CA 90703 (562) 547-4434, josephcho@yahoo.com

“한인경제 미래 한국서 찾아라”

김영만(상대 65년) 줄

미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미 노아호텔 이사장

지난 10년간 미국내 한인 경제 규모는 눈부신 성장세를 띠며 성장일로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인 경제 규모는 엄청난 잠재력을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경제력이 성장하거나 과거에 강했던 산업이라는 것이다. 20년이나 전까진 90년대 미국 경제의 기틀을 만들었고,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그 때와 시대를 비교하면 충분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각종 경제정책, 제도, IT기술까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경쟁의 강도가 높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을 것이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용계발, 생산성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길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기업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영어 유람장이 있어요. 정말 잘 가요는 70-80% 밖에 못 가요는데... 세리토스 시 의회 회의 장면을 TV로 생중계하는 드론도 연구하고 있어요. 유람장들이 그걸 잘 보고 있어요. 저희 1대는 발음이 제일 문제돼 드론도 연구하고 있는데 설날 전 날 밤에 연습을 철저히 하고 갑니다. 2022년에 대선 선거 준비할 때 선거 코디네이터(선대본 코디네이터)가 될 거예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선거 장려하며 영어 공부하는 줄마는 저 처음입니다. 그 웃었어요. 지금도 편하네요. 됐으니 그 때 바로 원하시면 됩니다.”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이사장은 “미국내 한인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끼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경제의 미래는 미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문 광장

칼럼

십자군



조태환(상대 56)

이 글을 읽기 첫 번째, 독자 여러분의 십자군에 관한 지식을 충동해서 미리 정리해 보시고 둘째, '십자군'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지 생각해봅시다...

Reagan 대통령은 'Crusade against Poverty' 운동을 벌여 십자군에 열려 전직 Bush 대통령은 'Crusade against Islamic Extremists'란 용어를 사용...

하고 비호적인 표현이었습니까 십자군에 대한 개념이나 냉정한 분석이 나오면 아마 대부분은 친구조도들이나 보수 우파들의 일부 개인들도 있을 것임...

에 대한 Holy Warriors 반 공서와 십자군 평행하던 무서워 십자군에 대한 개념이나 냉정한 분석이 나오면 아마 대부분은 친구조도들이나 보수 우파들의 일부 개인들도 있을 것임...

사정, 교황과 왕들의 힘 겨루기 사정, 힘의 경쟁이 아니라 거대담론, 힘의 Knight(원탁의 기사)에 나오는 Robert Taylor 같은 서양이교도들의 방법인, 예술품을 탈취한 후 해가다가 버리는 것일들을 들은 후 두리터에 안배 버리는 것을...

역사의 시간, 신화의 시간



한정중 (역사교육 75) 모교 서양사학과 교수 여성연구소장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을 보며 더 잘감해지고 나면 다른 다른 것들 속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것에서 히스테리한 소동이 시작됐지요.

필자가 특별히 무척했던 사상이 있었다는 재해석이 바로 대담한 그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아셨든 반면이기도 합니다.

이 것들과 아무 큰 상관도 없이 전자의 정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것들과는 그 처참함과 잔인함 때문에 시방의 기존 가치 체계는 뒤바뀌어 놓았다고...

2010, 2011년 건조한 숫자의 나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양사조 경인(庚寅), 신묘(辛卯)하듯이, 숫자들이 들어온 해, 한 해에 남다른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에 남다른 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우리는 보통 0이나 5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끝나는 해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해가 2011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11년이 지났고, 십정화하기는 해도 정성이 빠져 든다고 어떤 일을 앞두고 생각하는 한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런데 젊은 역사연구자 한 분이 2011이라는 숫자를 두고 꿈꿨다 하시더라, "이 해는 9·11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 하시더라, "2009년이 '해의 해'" 하고 줄 줄이 나열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법체계의 차이로 시시 전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엇비슷하다 달랐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법체계의 차이로 시시 전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엇비슷하다 달랐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법체계의 차이로 시시 전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엇비슷하다 달랐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법체계의 차이로 시시 전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엇비슷하다 달랐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법체계의 차이로 시시 전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엇비슷하다 달랐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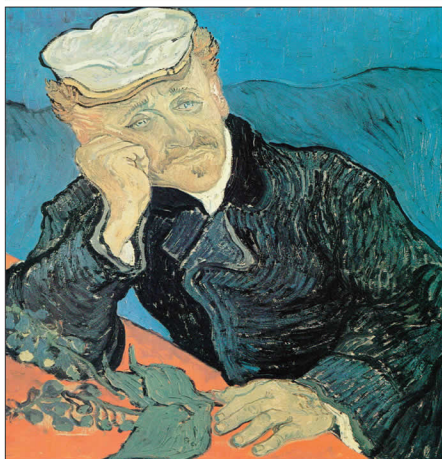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그러고 보니 참으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되며...

세계명화 감상<12>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와 그의 명작들



파란곡절한 생애,한편의 영화같은 삶의 화가
미술은 그의 영혼의 발휘, 37세로 권총자살

임이섭(미대 64)
aesoprhin@sbcglobal.net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그의 정열적인 그림들과 파란곡절했던 생애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한 특출한 화가다.

실제로 'Just for Life'를 비롯해 4편의 영화가 고흐를 주제로 만들어졌다.

고흐는 절이 화상을 위해 일 하면서 런던과 파리를 다니다가 왜 때 신학을 공부해 전도사가 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했지만 27세 때 미술가의 길을 택했다.
그에게 미술은 자기 영혼의 발휘이고 창작에 열중하며 친구같은 동생 테오와 편지로 영혼

의 대화로 하며 살았다. 그들은 많은 생애 중 마지막 수년 동안에 가장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으며 그의 감정을 타오르는 필치로 표현해 많은 걸작들을 남겼다.
그러나 항상 고흐와 변뇌와 싸웠던 그는 결국 37세 때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외사 가제트의 초상화

고흐는 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은 자기를 이해하고 격려하던 친구인 외사 가제트의 초상화다.
재와 앞으로 전면을 장식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검푸른 배경과 절은 청색 코트 속의 가제트의 얼굴에는 고흐를 향한 열려와 우울한 기색이 표현한 것이다.



사이프리스 나무와 벨이보이는 길

"사이프리스 나무들은 항상 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아름다운 선들의 율동이며 태양 속 풍경에서 하늘을 치솟는 검은 사이프리스 나무..."

고흐의 고백이다. 그는 사이프리스 나무를 그리고 또 그렸다. 고흐는 많은 번민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사이프리스처럼 하늘을 찌르듯 타오르고 싶은 심정을 상징한 것이다.
대담한 구성으로 험악한 색채와 박력이 넘치는 필치로 고흐 자신의 신념을 절묘한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다.

귀를 자른 후의 자화상

고흐는 동료 화가 고갱을 좋아하면서 절투했다.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알레에서 한동안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주 충돌했다.
1888년 크리스마스 전날 고흐는 고갱과 인쟁을 하고는 자분을 나눠서 귀를 해치려다 면도칼로 자기 귀를 자르고 봉대를 감아 회복하는 중 이 자화상을 그렸다.
고흐의 예술적 지력은 이 초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눈은 생계 상이된 채 아픔이 많은 상자를 안고 이 그림을 그려낸 것이다.
그의 고통과 고통이 아무런 전 없이 어려려도 그는 작품에 집착하고 열등해내 것이다.
고흐는 40여개의 자화상을 그



피에타

고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고흐 자신이 신학을 공부해 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다른 신앙과 고뇌를 체험했다.
"피에타"는 그러한 고흐가 소꿉 친구인 피에타를 애도하는 작품 중 하나다.
그것도 유랑한 엘리자베르의 차를 복사해 뒤집어 그렸는데 말년에 병실에 갇혀 있는 동

안 일종의 자기 고해성서처럼 그렸다. 고흐는 자기의 색깔과 강한 개성의 스타일로 그려 예수의 죽음을 자기 나름대로 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밖에도 고흐는 많은 명화들을 제작했는데 특히 밑에 그림에 대해 자기 자신의 수법으로 수없이 복사해 수업하기도 했다.
그림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외사 가제트의 초상화' 1890, 68 x 57cm 파리 인상파 미술관 '사이프리스 나무와 벨이 보이는 길' 1890, 92 x 73cm 오일로 미술관 '피에타' 1898, 16.5" X 32"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텔담 '귀를 자른후의 자화상' 1889, 59 x 47cm 런던대 미술관

지역 소식

남가주 · 뉴욕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뒤 환락패 6차 정기공연 열어

지난 1월 29일 노워크 더블트리 호텔(Doubtree Hotel, Norwalk)에서 정운관 전 총리·전 총장의 장년회와 동창회

신년총회를 열었다. 끝 이어 환락패 6차 정기 공연이 이어졌는데 이 연극은 1부 끝난 뒤 30여분간 진행됐다.

지난 한 해를 베고 는 매년 전통을 이어온 환락패 연극은 이제 서울대 동문회의 심플처럼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볼륨을 좀 높이고, 개그 소극으로 한층 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꽃무으로 부대를 꾸렸다.

고정범 동문이 잠은 환곡의 부산지역에 폭설이 내리자 시민기자단 '어리범 기자(이현영)'를 불렀으나 '어리범 기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리자 여자 친구와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행가를 소개한다. 더많은 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picasaweb.google.com/jbkoh122/2011?feat=ema11#

<출연 및 스태프> ▶단장=서치원 ▶가본/연출=이원영 ▶앵커남=양민 ▶앵커녀=이상실 ▶교장남 기자=곽보현 ▶안아래 기자=케이진 ▶환락패 기자=서치원 ▶방동중경(카메오)=김상환 ▶어리범 기자=이원영 ▶비오나 기자=켈리 박 ▶시위자=이별철 ▶소품및 무대진행=채희동 ▶음악=추철호 ▶소품지원은 독고량 ▶상주(출집여자 3명 목소리)=글리현 정

환락패 6차 정기 공연 뒤 출연자들이 무대 위에 나와 들뜬문둥게 인사하고 있다(맨 윗 사진). 한번 뿌리만 주면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꼬시고 볼레' 황수를 소개하는 '안아래' 기자(케이진, 오른쪽 첫 사진). 서울대 동문회의 현지 로보를 전하는 '교장남 기자(곽보현, 오른쪽 아랫사진). 사진 속의 오른쪽은 방송 남녀 앵커로 분한 양민(케이진), 이상실(함주리) 동문.



뉴욕 동창회가 오랜 열원이었던 젊은 동문 클럽 '관악회'를 청성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

뉴욕 동창회

30~30대 동문주축 '관악회' 창설

뉴욕지역 동창회가 오랫동안 열원하고, 또 추진해 왔던 관악회(관악회) 창설 동문들이 모임인 '관악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월 28일 맨해튼 53가 중식당에서 37명의 뉴욕지역 거주 30~40대 관악회 창설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관악회' 출범의 밤' 행사가 열렸다. '관악회'를 주축한 에드워드 강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은 이날 모임 관악회 동문들에게 이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관악회'가 이곳 뉴욕에서 동문들을 개개인의 성장하는 물론 동문 상호 간 도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든든한 조직으로 커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뉴욕지역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써, 또한, 차세대로 이끌 주역으로 기존 동창회와 긴밀한 연계해 작은 뜻이라도 합해서 멋있고 재미있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 동문들은 '관악회'를 이끌 첫 전장으로 조충범(지인영)을 주축한 에드워드 강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에게 '관악회'가 이곳 뉴욕에서 동문들을 개개인의 성장하는 물론 동문 상호 간 도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든든한 조직으로 커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 소식

휴스턴 · 북가주 · 필라델피아



휴스턴 동창회

70여 동문과 가족 송년의 밤 개최

휴스턴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25일 화랑 박흥수(장대 70년), 이사희 회장 소시호(문리대 59년), 동문 등 7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2010년 동창회 사업보고와 2부 만찬 및 여흥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축하 이 날은 다른 해외 필라델피아 가족들도 참석하여 더욱

활기찬 행사가 되었으며 여흥 시간 종료 즈음에는 모든 동문들이 흥에 겨워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모두 춤을 추는 즐거운 밤이 연출됐다.

한편 이날 밤 회장의 입이 만료에 따라 97년도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순덕 동문(사대 58년), 첫 사인 두번째를 올린주에서 세번째)이 다시 자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박순덕 회장은 “동창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여 휴스턴 동창회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고 2011년 사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동창회 이사회장 조시호 동문은 “이여 적극 힘조하겠다”며 뜻을 함께 했다.

<글> 구자동(삼대 77일), 사진> 김진진(의대 80일)

1-2부 만찬의 여흥 시간에 사시호 이사회장(원쪽)과 신임 박순덕 회장이 함께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텍사스남부



북가주 동창회

원미랑 동문 작품전시회 후원

북가주 동창회가 설치 화가 원미랑 동문의 개인작품 전시회를 후원했다.

원미랑 동문의 전시회는 샌프란시스코 포트 메이슨에 있는 SPMOFA 아티스트 갤러리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6주동안 열리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진 화가 이흥보는 원미랑 동문은 이번 전시회에 금속판을 ‘달빛’과 ‘햇빛’ 등 15점을 선보이고 있다.

또 베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화가로서는 작품 변화 경향을 보여주기 위한 유화 작품 한 점도 전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열린 전시 개막 리셉션에는 이경란 주 상향 총영사도 비롯해서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회장과 향민인 이사장 등 많은 동문들과 그림 애호가,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 중인 우리 동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사장 북가주 동창회장은 “포도밭으로서 미주 지역에서도

원미랑(왼쪽에서 네번째) 동문이 전시회 개막 리셉션에 참석해 작품앞에서 북가주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김경한·이장우 동문 회장·향민인 이사장·원미랑·김은정·이빈 동문

저명한 우리 동문이 이같은 전시회를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원미랑 동문은 모교 미대를 졸업후 프랑스에서 공부한 뒤 나파벨리와 고국의 초대기획전에 참가하는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시회장 SPMOFA Artists Gallery, Fort Mason, San Francisco, CA94123.



필라델피아 동창회

소프라노 이인영 동문 독창의 우연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동문 소프라노 이인영 교수(사건 오른쪽)·해체스터대)를 후원하는 독창회를 지난 1월23일 필라델피아 강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인영 동문은 모교 유대 및 동대학원, 템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거쳤으며, 템플대에서 2004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파바로티, 마르티넬리, 낫사(NATSSA) 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과 입상을 받았으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비틀 세계적인 악단과 협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필라의 차림가리인 키벨센터 개관 공연에 초청돼 연주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나의 빛” ‘나를 받으소서’ 등 음반에 수록된 곡 외에 한국가곡(3-4곡), 피아노와 오보에 연주 등으로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했다.

이인영 동문은 모교 유대 및 동대학원, 템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거쳤으며, 템플대에서 2004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파바로티, 마르티넬리, 낫사(NATSSA) 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과 입상을 받았으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비틀 세계적인 악단과 협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필라의 차림가리인 키벨센터 개관 공연에 초청돼 연주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지역 소식

시카고 · 밴쿠버



시카고 동창회

1월8일 신규 임원회 총회 실시

시카고 동창회가 지난 1월8일 신규 임원회 회장 차택에서 신규 임원 인수인계식 및 총회를 가졌다. 김사적 신임회장은 "지난해는 이영우 회장을 비롯, 여러 임

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수고로 여러 사업들을 성공리에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둔데 대해 감사할 드린다"고 축하했다. 김 회장은 이어 "2011년 새

및 사진은 시카고 동창회 김사적 신임회장 자택에 모인 임원들과 관계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면이고, 이밖 사진은 신규 임원들이 인수인계식을 한 뒤 2011년 한 해 사업과 행사들에 대해 토의하는 장면이다. 왼쪽 사진에서 이영우(왼쪽) 회장과 김사적 신임회장이 업무 인수인계하며 활짝 웃고 있다.

시카고 세종문화회

초·중·고교생 세종작문 경연대회

시카고 세종문화회(회장 김호범·상대 69, 사무총장 박종희·외대 69)가 매년 실시 중인 제6회 작문 경연대회를 다음달 같이 실시 하며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이경연대회는 우리 후손들과 타인종들이 영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에 에세이 쓰기와 영문작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에세이 부문> Senior Division grade 9-12 황순원 작가의 영문소설 '학'을 읽고 남쪽 분지와 통일 가능성에 관한 글인 topic으로 1,000자 이내 에세이 쓰기

> Junior Division: grade 8 and younger > 영문 한국의 전래 동화(생계구리) 신정진·홍부천 등 7편) 중 하나를 선택해 1,000자 이내로 에세이 쓰기

<시조 부문 one division for all pre-college students> Harvard 대 한국학 연구소 후원으로 실시하며 시조행태를 갖춰 자유주제 영어 시조쓰기 >에세이 시니어 division 1,400 상당 \$500유위시해 총 \$3,400의 상금이 수상자들에게 지급되며, 시조 상금은 Harvard 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후원한다. 미국 문단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대학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이며 수상 과정과 수상소감과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와 한국일보에 게재되고, 선택된 시조는 Harvard 대 한국학 연구소 발행 Azalea 계간지에 게재될 수 있다. *문의: 최영희 e-Mail로 문의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종문화회 웹사이트(www.sejongculturalsociety.org), 문의는 웹사이트 writing@sejongculturalsociety.org (312)497-3007.

밴쿠버 동창회

'관악 산악회' 중심 정기산행 다녀와

밴쿠버 동창회가 지난 1월 '관악 산악회'를 중심으로 Old Buck Trail과 Baden Powell Trail 지역 산행을 다녀왔다. 대지를 축축히 스며든 물이 작은 고방이 비좁은 듯 힘찬 물살을 뿜어 내고, 아름답게 펼쳐본 데일러스 천나무들이

내뿜는 유난히 신선한 공기들 흥취 마시며, 그 멋진 인디언들이 뛰어 놀던 산길을 따라 다니다 넓은 마당바위 Quarry Rock! 태평양이 팔 하나를 구부러 대지 깊숙히 파고든 Indian Arm. 대지의 비경을 찾으려는 태평

양 물이 Belcarra, Deep Cove 와 어울려 만들어 놓은 비경! 그것을 감추려는 운무가 또다름 경장을 만들어 내고... 갖가지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대자연은 바라보며 기대와 희망을 품은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산행이었다. 2월 산행은 Hollyburn 에서 겨울산행의 참맛인 눈길 산행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글=밴쿠버 관악산악회 문봉재>



여행기

'시카고 골든클럽' 러시아 기행

크레믈린부터 네바강의 선유까지



이윤모 (논대 57)

▶러시아를 14일(22일)은 헬싱키 공항에서 미국으로 오후 6시45분 모스크바행 항공기에 올랐다.

7월초부터 계속된 러시아의 부패와 부패한 사대, 미국 부패한 러시아 언론자에 대한 비판에 모스크바 일정을 보충하기 위해 실제 기행을 앞두고는 기회가 될지 살펴보았다.

날을 잊고 있던 러시아의 Aeroflot 항공기는 신형 Airbus: 320 여객기를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 무척정말 승무원들이 섬세하고 친절하고 유쾌한 항공편보다 좋았다.

밤 9시30분 정시에 도착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1시간여의 인사를 하던 후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밤 9시30분 정시에 도착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1시간여의 인사를 하던 후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시내로 이동했다.

전성했던 '사한 광장'에는 성모 수태 사신, 성모승천기념 사신, 12개 사신, 천사상 건물을 사한 등 4개의 비잔틴식 건물들이 흰 벽과 양파 모양의 돔과 돔을 깨자기 모양으로 있었다.

54개 피라미드형 탑 수동으로 디자인된 건축물로 이루어진 모스크바의 비잔틴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2세기 후반에 세워졌으며 이슬람교가 유입된 약 700년 후 중세기 세계 3대 건축 양식의 하나로 이렇게 건축 양식과 공평을 갖는다.

러시아 황제의 대리석이나 주조 대리석을 쌓는 '성모승천 사인' 벽의 비잔틴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2세기 후반에 세워졌으며 이슬람교가 유입된 약 700년 후 중세기 세계 3대 건축 양식의 하나로 이렇게 건축 양식과 공평을 갖는다.

가장 오래된 건물 중 모스크바 성전인 정교회사나 대성당으로 정교하지 못하고 긴 밤에서 안면의 설명만 들었다. 정치권 간섭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하늘에 들어갔다. 백경관 대교소를 감회 설계했다. 전경은 지평선 75m, 약 400m 에스컬레이터로 4층간 내려갔다. 차양은 특이한 것 같았다. 지하와 정장들은 스투모비 미술관이었다. 4개 정류장마다 내리벽과 천정을 장식한 그림과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 내리벽과 천정을 장식한 그림과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일행이 러시아 미주 대외어머 별다른 페데르코로 정원, 청음에 조각상과 본수대 시아의 계단에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모인 장면이다.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Table with 4 columns: State/Region, Name, Amount, and Status. Lists members from various states like Oregon, Tennessee, Texas, etc., and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기타 후원회비및 기부 납부

Table with 4 columns: State/Region, Name, Amount, and Status. Lists members and their specific contribution amounts for various categories.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순학식 건축사무소
순학식(공동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홍득(공동 58) (213) 394-3730
2525 W. 8th St. #201 L.A. CA 90057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동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alley Orange CA 92669

JND Engineering
박진득(공동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공동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영태해(공동 74) (951) 657-8200
23185 Betty Road, Pa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공동 70) (213) 383-853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영우 강영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동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공동 62) (213) 385-1985
25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공동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승규 공인회계사

최승규 (법대 52) (213) 381-0761
365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공동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g CPA
김규경 (사대 77) (310) 427-9595
369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석 공인회계사
* 신대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9-6525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홍원 (사대 81) (213) 427-956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18

이광현 공인회계사
이광현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필립진 (공동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8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동 85) (213) 75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공동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6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 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달수 (공동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공동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업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동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영대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태일러

한남채인 (리태일러/상표)
하기환(공동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은(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김복성(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4 L.A., CA 90015

리태일러/보석업

세계보석
김광철 (공동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동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중표 (법대 58)
(562) 467-5455
82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석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녹산물
김한철 (지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lda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대평양상사)
하성원 (공동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찬민(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정민(법대 68) (916) 922-6987
P.O. Box 398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동 84) (213) 38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59 Wilshire Blvd. #65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택(공대 65)
818-763-5161
11672 Tudori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장거점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성(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홍길(교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과대 65) (562) 924-1411
18021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장기환(과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노 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과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민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촌배 교육상담센터
이촌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민(과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명화가
Jade Textile, Inc.
(213) 744-0808
왕애민(공대 69)
37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원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ck St. #1-F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정식(문과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성(경문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88 Valley Bl. City of Industry CA 91746

서비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국진(과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조각
Craft Net
권대환(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명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식(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욱(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효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Engers Care Animal Hospital
하정림(수의대 67) (909) 982-2888
69 S.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현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r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애(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규우(수의대 73) (909) 867-5021
173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민덕동물병원
정민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804 Warner Ave. #9 Huntington Beach CA 92649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과대 65)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트리아/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800
E. Grand Blvd./ona CA 92719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종희(과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8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과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광물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훈(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cell Express
정해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son Foods, Inc.

이승훈(과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원 상사
하성현(대학원 90) (310) 608-3300
189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은화(상대 76)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종국(과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규(과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영민(과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서(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2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정호(과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3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양동호(과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재민(과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과과

가나디 치과
김태하(과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과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E AVE Gardena CA 90247

관중규 치과그룹

* 관중규(과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운범 치과

배운범(과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과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훈(과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r김치중 치과
김재중(과대 62) (626)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일명 치과
오일명(과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성 치과
우원성(과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과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과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J Lin Bak, DDS
박일진(과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두 보철치과
이병두(과대 70) (213)383-7500
385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과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종현(지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지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지대 65) (818) 952-6362
3700 Wi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지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지대 69) (562)866-6914
9951 Arl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지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지대 75) (323) 269-8308
2111 W.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지대 65) (8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성 치과
송은성(지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지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지대 72) (213) 739-8641
368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병호(지대 74) (323) 734-3710
968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준 치과
이강준(지대 67) (626) 912-8557
168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지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지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지대 65) (323) 68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 열혈내과
정수만(지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LA 내과 그룹
김승현(지대 75) (213) 385-5500
368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지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신부인과
최동욱(지대 6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지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현택 신경정신과
이현택(지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지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장대건(지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지대 47) (213) 739-2226
3130 Wi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봉기(지대 86) (213) 386-8275
3545 Wi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우(지대 66) (909) 425-8624
2916 Rowdram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MD,Medical Group
황석우(지대 67) (323) 251-0630
1125 Van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은(지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H, WILLIAM, M.D
안영환(지대 63) (909) 862-1231
36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승서(지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개업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홍(지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성(지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동)
정현희(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장재훈(지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이앤/냉장고-살생용
서지현(지대 69) (310) 719-5422
3421 Oxb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지대 63) (562) 941-0565
95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지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57)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성서장로교회
* 나만우(농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레아감리교회
임대수 (농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라 카나다 한인교회
탁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 Blvd La Canada, CA 91011

뉴 살렘 할미용 교회
김수영(지대 57) (213) 397-0930
23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홍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9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812 Bue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광(지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지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장효(지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김민성(지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왕재우 (공대 61)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종목/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번문대 81) (213) 387-1166
3700 Wishire Blvd., #43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역/안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수의대 61)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목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철(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더이코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초희 (84졸업) (868) 525-3222
4228 Conway St. San Diego CA 92111

University /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현(수의대 75) (78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복 가주

영양 / 컨설팅

두리야니 결혼정보
7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태미 대표와 동문사촌 박정환 대표
장지선(상대 69)
(510) 451-0240 / (510) 224-078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hakes1.com

수의사 /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철(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진(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안의원/안과

박희래 한의원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C, MD, VA 워싱턴DC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396

Choi & Co., CPA
* 최 환(상대 68) (302) 636-3009
2006 Limestone Rd. #10 Wincington DE 198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성근(법대 75) (703) 941-7395
78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재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5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학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김연식(상대 58) (703) 407-4070
1932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상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철(법대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항공

Drivetch, Inc.
* 영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수익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익생(수의 6)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덕
백병환(법대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1 St. Rutlands Office Building #408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왕필순(의대 56) (410) 3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6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최희철(의대 71) (301) 949-1345
2300 Optix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55A Pinecrof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종영 치과
이종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대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39-1177; Fax 703-639-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희(의대 75) (703) 242-0590
2915 Hunter Mill Rd. #6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장영주 (법대 73),
로원태 (사회대 9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패션잡화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G 합성회사
최우택(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문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김승국(공대 60) (773) 285-89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법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성(법대 76) 201-940-9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07657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학대 63) (773) 427-8870
4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병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재정상담

로열 부동산
영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현(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McCormick Drive Oak Brook IL 60523

셀리 컨 광인재정상담가
김원숙(건우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준(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호(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와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원재(의대 59) (847) 695-1620
302 홍영(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태연(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3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훈우 치과**

이훈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학원 / 문화학원

The Intercontinent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희(문대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35

MA 뉴잉글랜드

수의사 / 동물병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희(수의 61) (978) 851-3636
1058 Main St. Tewksbury MA 01876

Twin City Animal Hospital
홍상진(수의 62) (978) 343-3049
88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JK Realty Trust
김재호(상대 65)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의료 / 내과 / 전문의

강민혁 산부인과
강민혁(의대 6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미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전주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 / 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훈(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연(의대 57) (616) 459-1255
2650 Horizon Cr. SE #9#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훈(문리 70)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9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윤관 심장내과 C. A. V. A
윤윤관(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ital
이영오(의대 53) (248) 859-3490
4450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 Box 250 Bangor MI 49813

MN 미니소타

HDM Inc.
김영철(공대 65) (615)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9-3 Ridgeland NJ 07857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궁박 설계사무소
남상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6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승우(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620
New York NY 10018

세연 회계법인
* 김영준(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상대 64) (212) 760-1788
38 W 92St Suite 45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영배 (상대 77) (212) 563-2727
128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현 (권대원 86)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김화성(상대 64) (212) 868-2255
618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성익(상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우(상대 64) (212) 89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준(상대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er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장문영(상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대(상대 71)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일(상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050

Caps Unlimited
전병수 (상대 70)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영양(상대 81) (212) 967-0874
880 6th Ave. #31 New York NY 10018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 (문리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 #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원 변호사
조대원(상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희(상대 80) (212) 436-259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상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6 Flushing NY 11354

연병원 변호사
연병원(상대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영희(상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202 New York, NY 10170

사정석 변호사
사정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Y 07650

신동원 변호사
신동원(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진양(상대 77) (201) 461-1616
1580 Lenox Ave. #9 Fort Lee NJ 07024

레무어 / 중매상사
Evershine Mt. Corp. (외국)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숙(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이재현(상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현(상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개일 스티브 부동산
이영희(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J 11576

Re/max Diamond
류재현(상대 71) (732) 742-1919
1199 Ans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중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환영(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XenoBiotic Lab, Inc.
김희숙(상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8

상담 / 재정설계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은가족이 누리는 최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무엇든 법률상담부터 교통관련, 소송, IRS과사, 사고/상해보상, 247 생활방역, 신분도움 받기까지 미국내 모든 주에서 여행보고 기록을 지켜드립니다.
Pre-Fidalg Legal Services, Inc MSE Listed, BBB rating A+ 상 황문익(수의 76)Independent Attorney, Director 681-882-3894 www.prelgallegal.com 한 국어(www.prelgal.com, 영어(www.prelgallegal.com))

IBECONS Int'l
김재홍(상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 여행사
ARIH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일 전직여행사 (사유: 독립여행 리아라) 필 현지 언어 *전 직역 크루즈 투어 *가격합리 및 아시아 투어 *전 직역 ART TICKET
600-225-2225 / Fax: (212)239-0989

서비스 / 클리너 / 잠금장치
C & K Dry Cleaner (914) 698-1919
김진지(간호 80) (732) 574-0055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희(상대 63) (86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장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익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현(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론 / 인쇄
Radio Korea NY (718) 358-9300
135-36 39th Ave. #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홍상수(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술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 Inc.
조재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태현(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 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2-2424
136-25 41St Ave. 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Oh & Gynecology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철(의대 80) (732) 574-0055
228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이민(의대 82)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정기 일반내과
방정기(의대 69)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8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박승훈 위장내과
박승훈(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김장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 지 전문의료원
최희숙(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주재혁(의대 57) (201) 58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희 산부인과
김연희(의대 69)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병철 소아과
박병철(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영희(의대 68)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61-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유환(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원(의대 73) (201) 568-39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 Assc.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arleston Rd.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주규용(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altimore NY 11710

곽승용 정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홍희(의대 57) (645) 69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훈(의대 61) (908) 769-1020
 34-35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중희 치과
 이중희(의대 62) (212) 947-4742
 25W. 32St. #2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의대 67) (718) 886-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환찬 치과
 조환찬(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두수 치과
 원두수(의대 61) (718) 979-7277
 2789 Hyatt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의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영(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원(의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용(의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원(의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보통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u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황(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만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중고 / 교회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황(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클럽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만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증권 / 교회
 든든한교회
 김삼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업
 Cooper Art
 손승덕(의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신동필(과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011

조달봉 박사 수석교실
 조달봉(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문리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과대 72) (201) 659-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OH 오하이오
 상담 / 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홍(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익자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송홍(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8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ster Radiation
 로찬달(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하를랜드

의 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행(의대 58) (406)-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경(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3rd St. Muskogee OK 744

OR 오레곤

교 회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 (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HA 필라델피아
 Timothy Heals & Assoc.
 손태연(생태과대 77) 484-342-0200
 50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0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현(과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1 Wilmington DE 19808

금융 / 보험 / 리테일
 More Bank 이영제(사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태호(사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2) 6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shang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접화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riose Park PA 19027

Jay & CO
 재갈윤(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익자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용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man Animal Hospital
 주기원(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atown Animal Hospital
 정부식(수의 61) (215) 843-629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택(수의 59) (610) 629-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id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6)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호(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urren Lynne PA 19022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영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041

이조미 일식당
 최종윤(의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 / 내과 / 전문의
 Young Doo Song M.D.
 김영남(의대 61)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1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173

Riddle Memorial Hospital
 안상선(의대 67) (610) 891-3323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1

Hack R. Chung MD, MPH
 장학원(의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국 광명외과
 문대국(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하창기(약대 67) (215) 46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미국간치과
 김국진 (사대 69)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중규 치과
 김중규 (사대 63) (215) 745-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HOU 휴스턴
 수의사 / 동물병원
 시크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6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8

장 의사
 한국 장 의사
 조시환(문리 59) (281) 530-5400

13400 Bakire Blvd. Houston TX 77063

엔지니어링

선박기술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 (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골프회비
Anaco Inc.
이규진 (약대 60)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 (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UT 유학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 (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성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 / 중개업

EJ Estate
이은수 (경대원 73) (253)851-1658
1505 Gressa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 / 치료

김성열 치료
Daniel S. Kim, DDS
김성열 (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 (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상범 (법대 73) (425)228-7446
947 Power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콘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 (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성(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명락(공) · 오홍조(사) · 이준택(공)

영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자기회장 : 김근홍(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희(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 이병준(상) · 방은호(약) · 윤정목(약) · 이경림(의) · 서동영(사) ·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 진금성(약) · 이명욱(공) · 서종민(공) · 한재은(의) · 신승남(농) ·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숙자(사)
재무국장 : 박 숙(의)
특별감사 : 조대현(공) · 정 호(공) · 장기남(문) · 최순용(문) · 김 사 : 박영규(농) ·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최자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 조봉원(법) · 조대현(공)
구경희(의) · 이숙자(사) · 정 호(공) · 홍혜려(사)

논설위원

고병철(CH) · 김일준(CH) · 김창수(NY) · 김재환(WA)
장성경(CH) · 남재홍(NY) · 박 순(DC) · 오강남(BC)
육길희(CH) · 홍상래(MA) · 이석구(NY) · 이정광(LA)
임승희(SF) · 정홍택(PA) · 한정성(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자기회장 회장	한충철 (치대 82입) 562-960-8544(o) bluebirdan@hotmail.com 서지현(공대 69입) 213-415-1764 charliesuh49@gmail.com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북가주	자기회장	임용길(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ee@gmail.com
샌디에이고	자기회장 회장	서정훈(공대 81입) 859-740-4634 cysunh727@gmail.com 에드워드장(사대 80입) 212-584-9034 edwardckong@yahoo.com
뉴욕	자기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워싱턴DC	회장	공순용(공대 66입) 410-461-4425 sssong0019@verizon.com
워싱턴주	자기회장 회장	송상희(과대 71입) 703-298-9470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kimsajik@yahoo.com
시카고	자기회장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thrcdUSA@gmail.com 조화연(음대 64입) 610-328-2563
필라델피아	자기회장 회장	주기욱(수의 68입) 215-938-1097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b@sns.com
휴스턴	회장	김순규(과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자기회장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lee4naver.com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tee999@yahoo.com
조지아	자기회장 회장	김성진(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윤희경(문리 82입) 508-740-9188 heek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자기회장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chshin@mm.com
미네소타	자기회장 회장	정은욱(과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워싱턴주	자기회장 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8558 충필길(의대 58입) 614-378-2918
오하이오	자기회장	이성현(상대 82입) 808-956-8590 leesseng@hawaii.edu
하와이	자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캘리포니아	회장	배규영(상대 88입) 913-709-2335 kybae8533@gmail.com
하틀랜드	자기회장 회장	구명순(과호대66입) 913-268-0228 chungme@yahoo.com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플로리다	자기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ahoo.com
유타	자기회장 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hpark@fairchildsemi.com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캐롤라이나	자기회장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전남민(사대 72입) 719-592-0037 jonhnieun@hotmail.com
로키 마운틴스	자기회장 회장	오윤환 yhohe@atheon.com
애리조나	자기회장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오레곤	자기회장 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유재범(법대 55입) 907-223-0897 bol1043@hotmail.com
알래스카	자기회장 회장	백서연(농대 58입) 907-661-0818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vbioresearch.com
캐나다 온타리오	자기회장 회장	김하성(농대 74입) 905-873-1889 hakskim@gmail.com 이인철(상대 59입) in-cheol-lee@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자기회장 회장	조성기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een@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자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u@hotmail.com

“건강 진단, 한 번을 해도 ‘서울대학교 병원’ ”

건강진단에서 증중질환 치료까지 - 서울대학교 병원 LA오피스에서 진료 · 상담 · 호텔까지 우대 예약 빠르고 편안하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건강만큼은 최고에게 맡기십시오. 건강진단, 자주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뢰진이 최첨단 의료장비로 맞춤형 명품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호텔 수준의 이 센터에서 편안하게 하룻동안 모든 검사가 완료되며 질병 진단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 증중질환 치료까지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LA 오피스로 전화하시어 명품진료를 예약하십시오.

특히 “서울대 동문과 직계 가족 여러분께는 건강 검진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LA오피스 박순철 소장 smuhlaoffice@gmail.com
강지영 Manager Tel 213-785-8510



<http://usa.snuh.org>

LA Office
SCHOO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서울대학교병원 (LAS): 3089 Wilshire Blvd Suite 1940, Los Angeles, CA 90010
미주한인의 건강을 지키는 번호 213-785-85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배정 (82인 문리대) www.duo.co.kr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특별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 소개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인員,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귀족형’이 제1호인 대형 프로그램으로 이상향을 찾아드립니다.

· 배타당 커플매너서: 전문매너와 믿을 수 있는 커플매너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한국 회원검색: 한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활 강우, 2만 3천여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믿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문의 800-275-2525

이/시/아/나/항/공 탑승시 동문께 드리는혜택

- 1) 일번석 승객에도 인천공항 VIP 라운지사용 특권(음식/사위생/인터넷무선제공)
- 2) 최저가 항공권에 항공좌석 우선배정 특권(비상구자리등)
- 3) 매년 2~3회 정기적으로 한국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최상급 우대배치 제공
- 4) 가족과 동반여행시 가족에게도 상가 혜택 적용

알라스카 크루즈 스페셜 (글레이셔베이 포함)

한국인기이드/신내항식제공/한국기리요객/시애틀시내관광포함

5/15일, 5/29일 특별출발

시애틀출발 항공료포함

\$1350

중미의 파라다이스

1/28일출발

현상의 여행 4박5일

Costa Rica

\$1320 항공료포함

한국 여행

아시아나 이스타항공 리무진버스 탑승권(서울/시애틀)
한양대병원 종합검진 스페셜 할인혜택 - \$360(남) \$400(여)
지정할 호텔 한국 휴먼케어(문장 35년)
한국 울프 호텔 30~40% 할인 혜택
타덕스 제주3박3일 관광투어 9월10일 전국 일주일당

일본 및 동남아 여행

일본 미야자키 저울금 2박3일
일본 구마모토 저울금 2박3일
중국 광둥(목경3박/상해,황산3박/쿤밍3박5박)
방콕, 파타야 3박4일관광 및 글로브여행
파타야/세부 관광 및 글로브여행

유럽 여행

미국부터 전문가이드와 동행하는 VIP 투어
2011년 스페인/프랑스 8일 (\$2690) 3/26출발
2011년 북유럽 10일 VIP 투어(\$3950) 7/11출발
이태리 6박7일 / 유럽왕립리조트 10일
동유럽 하이랜드 9일 / 그리스, 터키 11일

북유럽의 리치4개국 크루즈 11박12일
\$1290+항공료(5/24,8/29,7/17,8/15,9/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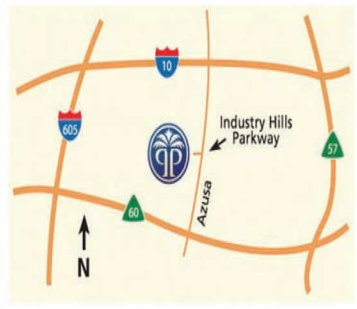
샤프여행사 예약 및 문의 : 800-222-3586 Email : sharptour@hotmail.com
1615 Milwaukee Ave, Suite 125, Glenview IL 60025 Homepage : www.sharptours.com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 제20차 LA 평의원 회의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에서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LA의 유서깊은 ‘Pacific Palm’ s Resort’ (아래 사진과 약도 참조)에서 제20차 평의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에 미주 각 지역 지부 평의원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 : 2011년 6월 10-13일 3일간 •장소 : Pacific Palm's Resort
1 Industry Hills Parkways
City of Industry CA 91744 •전화 : (626) 854-21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10일 : 등록및 접수 •6월 11일 : 제20차 평의원 회의
Reception, Cocktail •6월 12일 : Check out
환영 골프대회, 시상식 및 디너 |
|--|--|



FROM LOS ANGELES:

Take the 10 Fwy Eastbound to the 60 Fwy exit Azusa Avenue and head North, then turn left on Industry Hills Parkway.

FROM ORANGE COUNTY:

Take the 57 Fwy Northbound to the 60 Fwy heading West, exit Azusa Avenue and head North, then turn left on Industry Hills Parkway.

FROM SAN BERNARDINO COUNTY:

Take the 60 Fwy Westbound, exit Azusa Avenue and head North, then turn left on Industry Hills Parkway